

우리문화

특집 | 지역문화 전문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문화파워 | 다시 불붙은 한·중 고구려 역사 논쟁

문화여행 | 베트남·캄보디아 방문기



2004_7.8

VOL. 171

전국문화원연합회

秋客

가을은 어디서 오나요?

바람으로 오는 가요

꽃잎으로 오는 가요

추억으로 오는 가요.



문예회관 교육프로그램 기획안 공모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이하 전문연)는 2004년 지역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에 참가할 프로그램 기획안을 공모한다. 전문연이 문화관광부로부터 40억원의 예산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민들을 위한 우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각 지역 문예회관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위해 문화예술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 예술가, 교사, 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기획안을 공모, 이 중 선정된 안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각 문예회관에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서 양식은 문화부 홈페이지(www.mct.go.kr)나 문화예술교육 허브 사이트 아르테(www.arte.ne.kr), 전문연 홈페이지(www.naca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9월에 선보이는 창작뮤지컬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 9월, 창작 뮤지컬 두 편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9월 1일부터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황순원의 소나기'와 10일부터 삼성동 코엑스(COEX) 오디토리움 무대에 오르는 '안악지애사'가 그것이다.

'황순원의 소나기'(문의 02. 3445. 7972)는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안악지애사'(문의 02. 558. 7854)는 고구려 고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중국과 고구려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안악지애사'는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중국 전연(前燕, 337~370)과의 전쟁중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미천왕을 위해 안악3호분을 세웠다는 가정 아래 이야기를 풀어가는 역사극이다.

지광국사 현묘탑 이전 여부 골머리

경북궁 시대 폐막을 앞두고 새 보금자리인 용산으로 이삿짐을 한창 싸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광국사 현묘탑(智光國師玄妙塔)이라는 암초를 만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경북궁 안 박물관 야외에 있는 이 부도탑은 겉은 멀쩡해 보이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붕괴될 수도 있는 허약한 구조를 하고 있

다. 더구나 이 탑은 1962년 국보 제101호로 지정돼 있는 터여서, 선불리 해체 이전을 시도하기도 어렵다.

이 부도탑을 비롯한 야외 석조물 이전 작업을 맡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김유식 학예연구관은 "다음달중으로 문화재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그 결정에 따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4년 독립신진큐레이터 육성 전시회



마누엘 라이더 외 7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실험적 프로젝트인 '2004년 마로니에 미술관 독립신진큐레이터 육성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8월 5일부터 22일까지 마로니에예술관 소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신문전단열람소와 수집소의 형식을 취해 미술관에 전시하고, 미술관 지역의 주요 일간지 구독자에게 배포한다.

'2004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2004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가 내달 17일 신형정수도 후포지인 충남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장군봉 계곡에서 개막된다. 자연미술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진영 상정보대학장)에 따르면 자연환경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킬 이번 비엔날레는 미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등 세계 16개국에서 65명(국내 33명, 외국 32명)의 작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입장료는 일반 5,500원(단체 4,500원) 중 고생 4,500원(단체 3,500원) 초등생 3,500원(단체 2,500원) 유치원생 2,500원(단체 2,000원)이고 경로 및 장애자는 무료이다.

문화마를 들소리, 청소년 문화체험행사

문화마를 들소리(대표 문갑현)는 오는 10월

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에서 청소년 문화체험행사인 '2004 청소년 문화존 포토나들이'를 진행한다. '2004 청소년...'은 고양, 파주지역 문화관광지 12곳을 청소년 문화지역으로 묶고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 이 지역을 돌며 사진촬영과 워크숍, 공연감상 등의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이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중고생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031. 922. 9022)

문화재청,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제정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애호의식 고취를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올해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상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인 혹은 단체가 선정되며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장과 상금 각 60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개인(본인 추천 포함), 기관, 단체 제한이 없으며, 추천서 및 공적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ocp.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제공한다.

(문의 042. 481. 4811~2)

김해시, 폭염속 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남 김해시가 폭염속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로 무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색다른 피서 방법을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휴가철을 맞아 도시를 떠나 계곡과 바다 등에서 조용히 쉬고 싶지만 물러든 인파로 오히려 짜증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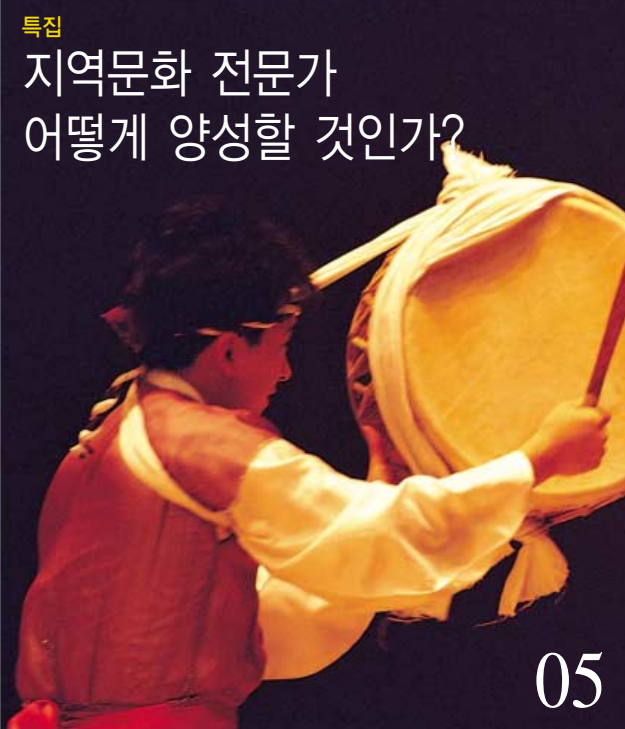
주요 행사로는 내외동 거북공원에서 가족영화인 '브라드 베어'.

야외 영화상영을 시작으로 진례면 가야문화 예술관에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열고 합창단과 가야금단 무용단의 공연을 갖는다.

Contents

July · August 2004 _ Vol 171

특집
지역문화 전문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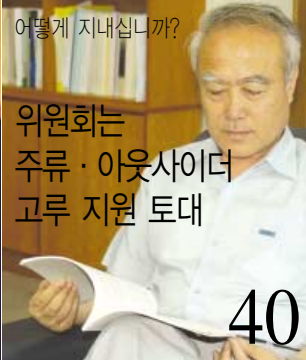
05

문화파워
다시 불붙은
한·중 고구려
역사논쟁



17

어떻게 지내십니까?
위원회는
주류 · 아웃사이더
고루 지원 토대




40

전통문화를 찾아서
옷칠공예 '40년 외길'
발명특허만 3건...



44

문화여행
베트남 · 캄보디아
탐방기



74

- 22 문화정책 일본의 '지역문화 리더' 길러낸다
- 26 문화르뽀 문화관광축제 홍보마케팅으로 승부 걸라
- 32 안과박 해리포터 · 백두대간
- 33 시 산새
- 34 화보 心野
- 36 문화정보 농촌미래 '농촌관광' 에서 찾는다
- 48 발길따라 '코등치기' 한사발 어때요?
- 52 사랑방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56 회의도 경쟁력이다 표결 진행순서
- 62 문화뉴스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 구축방안 등
- 70 문화원 탐방 동적문화원
- 82 교육여행 온 가족이 가볼만한 수목원 · 자연공원
- 86 책꽃이 사람됨의 도리 효 등

지역특성화 문화 발굴·육성을 위한 대토론회

지역특성화 문화 발굴·육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7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 전주관광호텔 2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60면〉

이 행사는 전국 순회토론회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에 바탕을 둔 지역 특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향토문화의 진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과 조남식 부회장, 300여명의 문화원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지회 이복웅 지회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사회를 맡은 이복웅 지회장은 참가한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전북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 방안 마련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체계적인 지역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의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문화정보 서비스 현황 분석,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의 구축·운영방안 및 향후 발전 방안과 기대효과를 주어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다. 〈관련기사 60면〉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작기간을 갖고 오는 2008년부터 활성화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지도의 제작에는 이흥재(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주강현(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이원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정책팀장)·하만기(당 연합회 사무총장)씨 등 8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배종신 차관 취임



문화관광부 장관에 정동채 의원(광주 서구·3선)이 취임했다. 신임 정 장관은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합동통신 기자와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거쳤다.

1998년 제1회 청소년보호대상(특별공로 부문) 수상에 이어 2002년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남녀평등정치인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62면〉

또한 신임 배 차관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문교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이래 체육부와 문화체육부의 행정관리담당관을 거쳐 한국종합예술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지원 사업’ 실시

정부는 통합복권기금으로 지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지방문화원 등에 지원하하는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기간은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농어촌, 도서지방 등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비롯해서 영세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사회보육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국문화원 새로운 원장 선임

전국문화원에서 새로운 원장의 선임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함평문화원장에는 이현석 씨가 추대됐고 양평문화원장에는 김유택 씨가 선임됐다. 또한 영암문화원장에는 신태균 씨, 대구 동구팔공문화원장에는 장주호 씨, 경주문화원장에는 최용환 씨가 각각 취임했다. 이외에도 하남문화원장에는 양인석 씨, 금정문화원장에는 최종섭 씨가 각각 선임됐다.

〈관련기사 64면〉

권용태 회장, 국회의원들과 회동

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국문화원연합회 임원진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권용태 회장은 국회 문화관광위 위원장과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이미경 위원장(열린우리당, 서울 은평)과 우상호 간사위원(열린우리당, 서울 서대문)을 초청해 오찬모임을 가졌다. 또한 문화원장단은 문화관광위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가평·양평)에게 축하패를 전달했고, 문화원장 출신의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 수원 시 장안구)의 당선 축하모임도 개최했다. 〈관련기사 63면〉





지역문화 전문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 06 >>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해야 지방분권 제대로 '실현' 정중현
- 09 >> 사회복지사가 있듯이 문화복지사도 있어야 홍승찬
- 12 >> 전국 문화시설에 전문인력 수용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이원태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해야 지방분권 제대로 '실현'



지방분권 특별법이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그동안 중앙집중적 국가운영 체제로 인한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에 입각한 무한경쟁 시대에 대처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방분권 특별법의 골자는 교육자치제를 개선하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다는 것 등이다. 또한 주민소송제나 주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나 법령 어디에도 문화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화, 특히 지역문화가 고려되지 않은 지방분권 특별법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이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방자치체 장을 주민들이 직선하고 지방의회도 기능하고 있다. 최신 건물의 청사도 위용을 자랑한다. 문화공간도 예전에 비해 대거 확충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문화마인드 없이 법을 만들고, 행정편의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지방경찰이 없어 지역이 낙후된 것은 아닐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없어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그런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화환경을 도외시하다보니 정책이 헛돌 수 밖에 없다.



글 _ 정중헌 | 조선일보 논설위원

연세대 국문과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했다.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이면서 단국대 대중문화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지방의 문화환경 부족이 수도권 집중화 원인

문화환경이란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요충분조건을 뜻한다. 지역주민이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요인들을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지방분권은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앙과 가장 격차가 심한 분야가 문화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적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들은 지방분권을 행정으로만 풀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이 정부가 밀어 붙이려는 수도이전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 인구가 포화상태여서 국가 발전이 어려워니 인구 50만을 덜어낼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밀어 부치기 전에 당국자들은 왜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가를 짚어보았는지 의문이다.

문화환경 그중에서도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만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서울같이 일류 대학들이 포진해 있다면 굳이 서울로 몰려들 이유가 없을 것이다. 수도 이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역 교육에 투자하고 서울 못지않은 문화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환경이 쾌적한 지방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환경 개선을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아야만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의 성장 동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환경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문화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쾌적한 환경은 물론이고 교육적 성취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문화예술을 향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대학을 나오면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곳에 정착해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굳이 서울로 몰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화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서울은 아수라장이 되고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과 지역의 동맥경화 풀어줄 문화 전문가 육성해야

지역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지역의 동맥경화를 풀어줄 문화전문가 발굴 육성이 필수적이다. 세분화하면 문화행정가, 문화지도자, 문화복지사 등이 될 것이다. 이들의 역할은 중앙에 집중된 문화환경과 문화활동의 피를 지역으로 돌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문화 전문가 육성에 앞서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정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문화정보화 사업으로 도서관과 저작권의 정보화를 비롯해 전국 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도 추진중이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별로 문예회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 '문화의 집'을 조성해 가고 있다.

문화의 집은 기존의 유희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생활권역 안에서 문화예술 정보를 접하고 체험할 수도 있는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안내데스크, 정보자료실, 음악감상 부스, 인터넷 부스, 문화관람 다목적 홀, 영상감상실, 비디오 부스, 문화사랑방, 어린이 놀이방, 휴게라운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적 소외감을 없애고 국민 모두에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문화복지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부는 내세우지만 과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방문화원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공간이다. 1965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지방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개발과 보급, 향토사 조사연구와 사료수집 및 보존, 지역행사 개최,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환경 보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역시 실효를 거두는지 궁금하다.

지역의 문화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국문화원이나 문화의 집 등의 문화공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전문가부터 양성해야 한다. 전문가와 지도자, 일선에서 뛰는 문화복지사 등의 문화인력이 체계적으로 육성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이나 지역문화 활성화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제도나 시설이 훌륭해도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이 없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든 것이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문화마인드가 있고 문화예술의 실재를 아는 문화행정가부터 양성해야 한다. 이들에게 지역의 문화환경을 가꾸는 행정실무를 맡김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살기좋은 삶의 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 논리를 앞세워 개발 제일주의로 나가던 지역행정을 문화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지역발전은 시간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행정가는 자연과 오염방지 등 환경을 우선으로 하여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마다 공원과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문화원장이 앞장서면 추진력 '배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지도자와 문화실무자 양성제도가 절실하다. 필자는 문화지도자 발굴 방안의 하나로 지역별로 예술가나 문화인, 교육자와 행정가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다.

우선 서울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권력자들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문화 발전에 봉사토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분야에 종사해온 지도급 인사가 자신의 경험과 인간관계를 활용해 중앙의 문화환경이나 예술활동을 지역 실정에 맞게 끌어들이는다면 보람도 클 것이고 효과도 즉각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문화원장이 이런 일에 앞장선다면 지역 출신의 유지나 기업가의 창조도 얻을 수 있어 추진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처럼 정부 지원에만 의지해서는 문화원 활동이 미미할 수 밖에 없는데, 문화지도자 육성발굴의 견인차 역할을 맡기고 문화마인드를 지닌 지역행정가와 협조케 한다면 지역문화는 분명히 살아날 수가 있다.

문화복지사는 정부가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복지사처럼 인문계 출신자들에게 문화활동사 자격을 주자는 제안이다. 문화의 집이나 지역의 문화공간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짜주고, 감상 뿐 아니라 예술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하는 도우미 개념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며, 문화는 곧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사가 있듯이 문화복지사도 있어야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한 욕구들을 분출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활동들 또한 그런 욕구들을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특히 인간들의 욕구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각종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과거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었던 교육기관까지도 기업 경영의 방법을 도입하면서 시대적인 추이에 앞장서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더불어 마치 성역처럼 굳렷던 의료 서비스의 경우 아직 정착 단계에 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가정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가정의 제도’와 비슷한 문화예술 개인 서비스 제도 마련할 때

문화예술 분야도 이제는 개인 서비스에 눈을 돌릴 때이다. 가정의가 병원을 개업하지 않고도 개인과의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 인력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길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 사람의 전문가를 구심점으로 하는 다양한 동호인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가정의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건강과 질병을 점검하고 돌보다가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종합병원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는 것처럼 문화예술의 개인 서비스도 필요할 때면 항상 문화시설과 예술기관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공조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글 _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전공 교수, 서울대 대학원 서양음악학 전공(박사과정 수료), 예술의 전당 이사, KBS 교향악단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예술경영 입문' '예술경영의 이론과 실제'가 있다.

이 경우 이런 모임을 조직하고 이끌어 나갈 전문 인력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구성원 개개인의 신상과 성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회원관리의 시스템의 구축이다. 일단 모임에 참여하게 된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빈번한 직·간접적 접촉을 통해 상호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정보에서 질문에 이르는 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도 양질의 유무를 떠나 항상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응답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성가시고 벅찬 일이다 싶겠지만 컴퓨터 통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철저하게 배분하고 관리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상호간의 신뢰감만 조성된다면 나머지 일들은 구성원들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구성원들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도 구성원을 스스로의 참여로 해결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성가시고 벅찬 일이다 싶겠지만 컴퓨터 통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철저하게 배분하고 관리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상호간의 신뢰감만 조성된다면 나머지 일들은 구성원들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구성원들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도 구성원을 스스로의 참여로 해결할 수 있다.

문화원에 별정직·계약직 문화복지사를 ...

불신이 팽배한 우리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역시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에 대한 공신력의 문제이다. 개인의 아이디어나 능력만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먼저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만한 가시적인 움직임부터 있어야 한다. 당장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의 회원관리 시스템이나 언론사의 문화센터를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회원관리와 문화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문화정책의 차원에서라면 기초 자치단체나 지역 문화원, 혹은 문화의 집에 현재의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문화복지사를 별정직, 혹은 계약직으로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그만한 역량을 감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만 인력에 대한 현실성 있는 역할부여와 운용계획만 수립된다면 반드시 전문 인력만을 고집할 까닭도 없다. 당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과 남다른 관심이 있는 기존의 일반 행정요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양성제도에 앞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추가로 선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렇게 선발된 요원에게는 당장의 가시적인 결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기발전과 전문성 획득을 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가장 먼저 수행할 일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전문가들의 소재와 신상을 파악하여 그들로 하여금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토록 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자문을 얻고 기획안을 마련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신상에서부터 문화적인 요구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와 자료는 이미 결성된 관련 위원회에 제공하여 그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안목이 서게 되면 이번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보다 폭넓은 정보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부터 제공한다. 그리고 이후로는 정보 서비스 사업에서부터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인력 일체를 자원봉사자로 충당하도록 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 역시도 관련 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실행토록 한다.

문화복지사 협력 통한 무한대의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일단 사회 저변에 문화복지사와 같은 기간요원들이 제자리를 잡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과 여건을 가진 그들이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단은 서로의 정보부터 조건 없이 나누고 또 모아야 한다. 다음으로 서로의 프로그램을 교환할 수도 있고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하는 대상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넓혀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의 협력관계가 확대되어 나가면 그것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 보다 적극적이면서 탄력적인 문화예술 서비스, 즉 열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이 앞서 언급했던 가정의제도와 같은 서비스의 형태까지도 다각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이다. 기초 자치단체나 기업, 혹은 문화예술기관 등의 정보교류, 프로그램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로 같은 문화예술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동호인 모임이 결성될 수도 있고 이들이 또 다른 문화예술의 주체로 떠오를 수도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의 역할 수행이라면 언어구사와 컴퓨터 조작 등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 이외의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특별한 능력보다는 스스로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역시 교육과 훈련으로 축적할 수 있는 역량임으로 그 방안까지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삼아 덧붙인다면 당장에 확보된 인력들은 문화관광부나 전국 문화원 연합회, 혹은 이들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임받은 교육기관이 마련한 별도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수시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확보하게 될 전문 인력들은 위에서 언급한 자질들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 선발해야 하고 이들 역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전국 문화시설에 전문인력 수용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참 여정부 출범 이후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와 때를 같이하며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 되고 있다. 이미 2001년 정부(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의 해’를 선언하며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을 집중한 이래 지역문화에 대한 자각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논의가 활성화되어 왔지만 지금까지도 국정과제의 핵심을 차지하며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새삼 논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온 해묵은 주제이다. 모든 국민은 사는 곳이 어디건 상관없이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 여건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의 역량이나 경제적 수준, 사는 곳의 차이에 따라 문화향수 기회와 질적인 차별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글 _ 이원태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정책팀장

문화관광부 지역문화TF팀 대표집필위원과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 추진위원회 위원이자 국정홍보처 전문가국정모니터 위원이고 서울특별시 Hi-Seoul 페스티벌 시민위원회 기획위원이다.

지방거주민도 온당한 국민 대접 받아야

우선 정부의 공공 서비스 정책은 급격한 도시화와 맞물려 효율성의 잣대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방에서는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경쟁에서 밀려났거나 대도시로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자발적인 지방거주자들은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 원인은 개인의 선택이나 여건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교육 불균형과 맞물리면서 지역간 문화 불균형과 개인들의 문화소외는 더욱 심화되었고, 아울러 중앙공급식 문화정책의 폐해인 정책결정권자의 일방적, 수혜적 정책시행으로 피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껏 중앙의 결정이나 눈치를 살피거나 흉내내기에 급급하여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였고 자연발생적인 문화의 싹마저 육성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사회는 이미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마저 무너져 이제 자력으로는 그 토대를 재구축하거나 자생력의 싹을 틔울만한 기본적인 역량이 말라버렸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정부의 시혜적 노력이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집중 지원 등 정책적 보완수단에 의한 노력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창조성이 생명이고 그 다음이 육성책이나 진흥사업이 효과를 거둔다는데 착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 단초는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핵심이다. 문화의 창조는 예술가의 창조력과 매개자(제작자와 매니지먼트 등)의 창의성이 결합돼야 수용자에게 향유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의 문화역량 강화와 지역문화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지역문화행정가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필요

현재 지역문화행정 담당자 양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교육기관은 문예진흥원 연수원이 유일하다. 공무원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도 일부 문화행정 연수 프로그램이 있지만 소양교육 또는 전문과정의 일부이거나 전문성 확보의 곤란으로 실효적인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문예진흥원의 연수기능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행정 종사자 및 민간의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충, 프로그램 강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예진흥원은 특수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자와 향유자를 연결하는 문화기획, 예술경영자 등 민간 문화사업 담당자(매개자)의 전문성 확보 교육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예진흥원의 문화행정 연수기능은 지역문화행정가의 교육 및 신규보직자에 대한 전문화 교육, 공연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재직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역축제기획 등 예술경영 전문인력에 대한 심화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현장





건설링 수행 능력 향상 교육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과정의 심화가 필요하다.

민간부문의 교육과정은 일부 대학의 특수대학원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나마 예술행정 및 경영 관련 대학원은 서울이 16개, 경기권 2개, 충청권 4개, 기타지역이 4개로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행정 및 경영 관련학과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인력채용 구조 및 여건의 미성숙으로 직업화의 수준이 낮은 실정이고, 전임교원 및 전문 강사진 확보 수준, 현장 연계교육도 부족하다. 그 외 문화전문 인력의 공적·사적 양성기관도 일부 있지만 서울권에 집중되어 있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지역 문화인력의 공급처가 되거나 재직 중인 직원의 전문성 제고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문화시설에 전문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커리큘럼과 강사진의 상호교류, 문화예술기관과 교육기관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 국·공립 대학에 문화관련 특수대학원 또는 관련학과(축제기획, 지역문화정책·행정, 문화시설경영과정 등)를 설치하여 이수자의 경우 지역문화시설 등 문화예술 부문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시 우대함으로써 지역에서 배출한 인력을 현장과 연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소재 대학과 문화기관간 연계체제 구축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보완책은 현재 서울중심의 문화인력 배출로 발생한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문화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예술경영·문화예술 전공자 대상으로 '인턴십' 운영도

문화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예술경영 전문인력의 문화분야 고용 확대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석·박사급 문화예술경영 전문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배출되는 고급 인력이 관련 기관 진입 기회 부족으로 타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전공을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전국의 문화시설 등 문화예술기관에 필요한 문화전문인력 확보는 예산 미확보, 정원 규정 등 제도상의 사유로 채용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 각 지역의 지방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문예회관 등 공공 문화기반시설은 1,500여 개소에 이른다. 이런 기관들에서 예술경영, 문화예술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전문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제도 도입과 예산 확보라는 부분적인 걸림돌만 제거되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 경우 신규 채용되는 인력을 위해 소요되는 급여의 일부분을 국고 및 지방비에서 지원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교육의 내실화 및 고용효과를 높여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문화시설의 가장 큰 문제인 전문인력 부족을 효과적으로 해소시켜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반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의 책임자를 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전문경영인 CEO를 영입하고 예술감독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프로그램 기획, 제작이 가능한 예술인(연출자), 예술경영자 등 전문인력을 계약직 운영책임자로 임용하면 공공문화시설 운영비 지원 인센티브제와 연계하여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현재 시설관리 차원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 문화공간에서 예술경영기법의 접목을 통하여 사업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인력 네트워크화 통한 인력풀제 운영 '가능'

또한 문화 전문 인력의 배출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문화현장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수급 불균형 문제와 지역간 인력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네트워크화와 인력 수급을 매개할 고용지원센터 운영이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 문화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내 문화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역내 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학교, 연수원등), 문화기관(문예회관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지역별 네트워크는 지자체 전담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거나 또는 중앙정부(문화관광부)에 인력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각 지역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별 문화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타 지역과 인력 수급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문화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이 기관을 통하여 문화전문 인력의 양성과 현장 배치, 재교육 등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추진한다면 전문인력의 기회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인력풀(Pool)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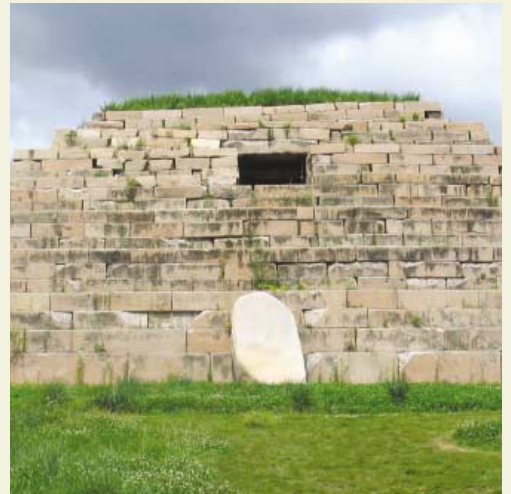
아울러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문화 감수성 계발과 문예특활교육도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작 예술가는 많으나 연극, 국악,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교수인력이 필요한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예술가와 학교를 연결하는 강사 인력 풀(Pool)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미 시행 중인 연극, 국악, 영화 외에 시, 소설, 현대무용, 고전음악 등 타 예술 장르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전문가 양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면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환경으로 인해 문화적 소양이나 감성이 부족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 주위에 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하지 않을 뿐이다.



•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재주가 많기로 유명하다.
어느 외국인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젓가락질을 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문화상품을 만드는 기술력이 탁월하다고 말한다.
어느 농가의 툇마루,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의 손끝에서 갈바람도 잠시 멈춘다.

다시 불붙은 한·중 고구려 역사 논쟁

중국은 고구려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뒤 유적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이상수 베이징 특파원이 그 현황과 배경을 현지 취재했다.



새로 단장된 장군총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두 명의 젊은 안내원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구려가 중국의 예속정권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되풀이해 펴고 있다.



한 국과 중국 사이에 고구려 역사의 귀속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불거졌다. 지난 2004년 7월13일 김하중 주중 한국 대사는 중국 외교부의 고위층과 만나 최근 고구려사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다음날인 14일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은 리빈 주한 중국 대사를 소환해 고구려사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다시 한번 비판했다.

지난 2월 이른바 '동북공정'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한·중 두 나라는 외교적 마찰을 빚는 대신 학술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합의에 도달했다. 최 차관은 최근 중국 정부의 태도가 이 때의 합의 정신을 어겼다고 리빈 대사에게 항의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태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중 사이의 고구려사 분쟁은 7월초 중국 쑤저우시에서 열린 제28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중국과 북한이 각각 등재 신청한 고구려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시에 등재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중국은 지린성 지안시에 있는 장군총·광개토대왕비(호태왕비)·태왕릉 등 42건의 고구려 유적과 랴오닝성 환런시에 있는 졸본성(우누산성) 등 모두 43건의 고구려 유적지를 '고구려의 수도와 왕릉, 귀족의 무덤들'이란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중국의 고구려 유적지 등재 신청은 다분히 2002년 북한이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지를 등재 신청한 데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 짙다.



북한은 2002년 평양 무진리 동명왕릉, 호남리 사신총, 평북 덕화리 고분군, 남포시 강서삼묘 고분군 등 평양 일대 5개 지역 63기(벽화고분 16기)의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7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조사단의 접근을 꺼렸다는 등의 이유로 등재가 보류됐다.

중국은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고구려의 역사가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로 인정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지안시 일대의 고구려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것을 추진했다.

북한이 고구려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동안 중국이 자국 영토내의 고구려 유적지를 방치하고만 있다면,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귀속된다는 중국의 주장이 설득

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7월1일 중국과 북한이 각각 등재 신청한 고구려 유적지가 동시에 통과된 뒤 북한 이의하 수석대표와 중국 대표단의 장바이 국가문물국 부국장은 고구려 유적지 보호에 중국과 남북한이 힘을 합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다음날 중국 언론은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일 “고구려는 역대 중국 왕조와 예속관계를 맺어왔으며 중원왕조의 제약과 관할을 받은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고구려가 “민족적 특색을 지닌 문화를 창조했으나, 중·후기에는 중원문화의 영향을 매우 깊게 받았다”며 “견고한 산성, 웅장한 농묘, 휘황찬란한 고분벽화는 화하(중국) 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인민일보>도 이날 고구려 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실을 보도하면서 고구려가 “우리나라(중국)의 고대 소수민족”이라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언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이 통신의 보도는 일종의 ‘보도지침’이라는



요동벌판을 내려보고 서 있는 고구려 요동성의 북쪽날개 백암성. 중국 당국은 지안시 일대의 고구려 유적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보호와 복원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중국 중원정권과 고구려가 첨예하게 맞섰던 요동지역의 성곽 등 유적지에 대해선 방치하거나 아예 고구려 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나오는 고구려 백암성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산성이나 오늘날은 전국 시기 '연나라'의 성으로 둔갑해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조금씩조금씩 허물어져가고 있다.

점에서 이 통신의 보도는 그대로 중국 당국의 관점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 외교부는 최근 홈페이지 한국 항목에서 한국의 고대 국가 가운데 '고구려'를 아예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중국 외교부의 이런 행동이 고구려사 논쟁을 학자들에게 맡기자는 지난 2월 한·중간의 합의를 어겼다고 항의했다.

중국은 7월1일 지안시 일대의 고구려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1년여 동안 보수해온 고구려 유적지를 2일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유적지에서 고구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글쓴이는 13~16일 현장에 다녀왔다. 예측했던 대로 중국 정부는 유적지마다 새로 배치한 해설원들의 입을 통해 “고구려사는 중국사”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광개토대왕비(호태왕비) 앞의 안내원 귀아무개는 이미 모든

해설 내용을 암기한 듯 거침없이 ‘동북공정 사관’을 관광객들에게 쏟아부었고 있었다. “고구려는 중국 중원정부에 매년 조공을 바쳤던 예속정권이었다. 이 비석을 보라. 4면에 쓰인 글자가 모두 한자다. 이들이 왜 한자를 썼겠는가. 또 이 비석의 이름을 보라. ‘호태왕비’이다. 왜 ‘황제’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고 했겠는가. 고구려가 중원정권의 예속정권이라는 점은 이런 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질문을 했다. “고구려와 오늘날 조선(한국)과는 어떤 관계인가.” 귀는 거침없이 답변했다. “고구려와 오늘날의 조선(한국)과 관계가 있다는 건 역사적인 ‘오해’다. 사실은 아무런 직접적인 계승관계가 없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200년이나 지나서 고려가 건국되는데 어떻게 직접적인 계승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전달하게 됐는지 궁금해 여러 안내원들에게 끈질기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이 유적지 안내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단위 문물국에서 지도하는 집체학습에 참가해



국내성 서면은 2000년 이전 훼손이 가장 심각한 고구려 유적지 가운데 한 곳이었으나, 중국 당국은 지난시 일대에 총 2억위안(약 300억원)을 투자해 성벽에 기대 지은 판자집 따위를 철거하고 주변에 풀밭과 오솔길을 조성했다.

야 하며, 그 학습과정에서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분이라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습득했음을 알게 됐다. 중국은 지금 고구려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뒤 유적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역사 왜곡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기 위해 역지를 부리는 까닭은 명확하다. 영토 문제 때문이다.

중국 국가가 운영하는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인 중국사회과학원에는 ‘중국변경역사지리연구센터’(소장 리성)라는 산하 기관이 있다. 우선 중국사회과학원이란 한국이나 서방 국가의 학술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은 1977년 소련의 사회과학 아카데미를 본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기관이다. 오늘날 중국사회과학원은 31개의 연구소, 45개의 연구센터, 300여

개의 분과연구소에 총 연구원 4200명을 거느린 공룡조직이다.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자료와 연구 성과는 중국사회과학원으로 집결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인 변경역사지리연구센터는 1983년에 설립됐다. 이름이 말해주듯 이 연구센터의 중심 과제는 중국 ‘변경’의 영토 문제를 확정하기 위한 연구조사 작업이다. 다시 말해 어디까지가 중국 땅이며, 왜 그곳이 중국 땅인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와 지리적인 근거를 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중국민족은 고대로부터 스스로 동서남북 사방의 ‘오랑캐’에 둘러싸여 있으며, 자신들이 ‘중화’라고 주장해왔다.

오늘날에도 중국의 동서남북은 모두 영토 경계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몽골인민공화국





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내몽골자치주가 있고 서쪽으로는 신장 위구르족 자치주와 티베트(시장)의 귀속 문제가 있다. 남

쪽으로는 대만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고, 동쪽으로는 동북지역과 간도 문제가 있다. 변경역사지리연구센터는 1983년 설립 이후 각 지역 변경의 영토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자료집과 논문 형식의 글을 축적해왔다. 가령 동북지역과 관련해서는 1998년 9월 이 연구센터가 구성한 '현대 중국 변경 조사연구 시리즈' 과제팀이 '조선반도(한반도) 형세의 변화가 동북지역 안정에 가하는 충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동북지역 변경 조사연구 작업'의 과제로 다음을 들고 있다.

1.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의 추적 조사연구.
2. 기자조선·위만조선·고구려·발해 등 역사 귀속 문제와 중·조(한) 국경 문제, 19세기 후반기 한국 난민의 중국 이주, 중국 내 조선족 형성과정 등을 포함한 중·조(한) 사이의 뜨거운 쟁점 연구.
3. 동북지역의 마약·종교·민족문제 등 쟁점 조사연구.
4. 북한으로부터 난민 발생 가능성과 대책 조사연구.

이 보고서가 제시한 연구 과제란 쉽게 말해서 중국과 남북한 사이에 국경분쟁이 벌어지거나 북한으로부터 난민이 대규모 유입하는 등 국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쟁점은 결국 간도 귀속 문제로 압축되며, 나아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고구려 지배 영토에 대한 남북한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료와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두자는 논리다.

이어 중국사회과학원 변경역사지리연구센터는 2002년 1500만위안(약 22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동북 변경의 역사와 현상 연구 공정'을 추진한다. 이것이 이른바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의 중점 연구항목은 고구려사이다. 중국변경역사지리연구센터는 고조선 또한 중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엔 이런 '동

북공정 사관'이 반영된 새 역사교과서가 등장할 예정이다. 2006년엔 동북공정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으로 있다. 고구려사 문제는 단순히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한번 항의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어찌 보면 일본의 역사 왜곡보다 더 심각한 면이 있다. 일본 관방 학자들의 역사왜곡에 대해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비판적인 언론을 발표할 수 있다. 하타다 다카시나 가지무라 히데키 같은 역사학자들은 일본 관방 학자들의 한국사 왜곡을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에는 그런 '비판적 지식인'이 설 땅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오로지 중국 국가 이데올로기의 관점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관련 연구원들이 있을 뿐이다.

이들의 패권주의적인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화공존'과 같은 나약한 구호로 자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들의 패권주의적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 축적과 연구 성과와 강력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어야 이 철옹성 같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비로소 '평화공존'을 이룩할 수 있음을 한국은 직시해야 한다. 수·당과 수십년 전쟁을 치른 고구려인들 또한 '평화공존'을 위해 그렇게 엄청난 피와 땀을 흘렸음을 고구려의 후손들은 깨달아야 한다.



글·사진 _ 이상수 | 한겨레신문 베이징 특파원
85년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90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했다. 2003년 연세대 대학원(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저로는 '바보새 이야기' '오랑캐로 사는 즐거움' '김용옥론:철학의 세속화인가 세속의 철학화인가' 등이 있다.

일본의 '지역문화 리더' 길러낸다

일본 공민관에서 배운다



우리 문화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본 공민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다. 역할이 문화원과 유사하고, 격변기 일본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필자도 사회교육을 통한 지역문화활성화 주체인 공민관에 관심이 많았다. 공민관에 대하여 그간 공부하고 느낀 바를 여러 차례 소개한 적이 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발표한 자료를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다.

- 일본 공민관 현황과 사업내용, (『우리문화』, 1996.8)
- 일본 공민관 운영과 직원의 신분, (『우리문화』, 1996.9)
- 일본 공민관과 유관기관의 관계, (『우리문화』, 1996.10)
- 일본 공민관 활동의 평가와 시사점
(전국문화원장연찬회, 1997.5.6)
- 일본공민관 체험기, (『우리문화』, 1999.2)
- 일본 공민관이 변하고 있다, (서울문화소식 창간호, 2002.1)



필자의 글 가운데 체험기는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오사카에 거주하면서 타지리초 공민관을 드나들며 생활한 경험을 소개한 것이다. 공민관 변화에 대한 것은 문화원장님들과 2001년 가을에 여러 공민관을 돌아다녀 보고 돌아와 정리한 글이다. 일본 공민관의 실태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분은 이 글들을 읽기 바라며 시간과 지면을 절약하여 여기서 전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겠다. 공민관의 주력사업은 역시 사회교육이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보다는 사회 '학습'에 치중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키우고, 공민관입장에서는 지역의 문화리더를 길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문화여건은 많이 좋아졌다. 지역문화 활동도 총체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제 지역문화활동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지역의 문화 '리더'를 키우는 일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소비자와 문화매개자를 전문화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문화소비자와 문화매개자의 활동터전인 공민관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연계를 맺으며, 교육시키는가 살펴보자. 우리나라에 참고할 사항이 있을까 해서 주민, 공민관 종사자, 자원봉사자로 나누어 보겠다.

《《 다양한 자발적 교육학습

공민관에서는 나이별로 어린이, 노인층, 부녀자층, 청소년 층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교육학습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어린이 대상의 교육활동인데, 주 5일제수업이 정착되면서 공민관에서도 지역 어린이 대상 교육에 몰두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정신적 나약, 시험중심 공부, 편식, 나약한 체력, 예절부족이 심각하다. 이를 감안하여

아동센터(놀이실, 집회실, 도서실, 운동장 등)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또한 연수실, 다다미방, 미팅살롱을 개방해 「커뮤니티 스쿨」로 활용한다. 또한 미술관·아동과학관·동물원 등 시정부의 유료시설을 무료개방해서 여러 분야에서 어린이와 지역의 연대를 활성화하고 있다.

노인층에 대해서도 지역문화를 교육한다. 고령화사회에 맞춰 영화감상, 춤추고 민요 부르기 등 시간소비적 학습이나 강좌가 많다. 최근에는 신체활동을 동반하는 학습으로 체육·레크레이션, 원예교실, 사육교실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향토사, 민속연구 등이 많다. 아울러, 시조,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 창작활동이나 그간의 지식·기술과 경험 등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활동을 추진한다. 이는 고령자의 흥미를 만족시켜 주어 보람 있는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한다. 시간여유를 자원봉사로 활용하도록 전문화시킨다.

부녀자대상 활동도 다양하다. 공민관 이용자의 대부분은 부인층이며, 이들에게는 학습강좌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 문화강좌(가정교육, 생활개선, 편물, 수예강좌 등)가 많다. 그 밖에도 대회, 연수회, 강연회(부인대회, 부인학습반 연수회, 가정교육 학습반 연수회, 문화강연회 등)이 열린다. 각종 서클활동이나 예술문화관계의 공연(연극, 음악, 무용, 전시회 등), 체육·레크레이션(체육, 스포츠, 레크레이션) 지도자 육성프로그램도 사람키우기에 기여한다. 물론 도서관, 시청각실, 음악실 등의 개인적 이용 등도 활발하다.

청년층대상 활동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청년 대상 활



일본 공민관에서 배운다

동 중에 중요한 것은 학습이나 교양활동,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활동, 오락활동, 직업지식 습득활동, 문예활동, 사회환경 정화 등이다. 또한 구성원의 흥미·관심·욕구 유발, 임원의 리더십, 단체의 성장도, 상호간의 결속을 강화한다. 공민관에서는 시와 공동개최로 성인식을 열고 있다. 참가자가 매년 감소하고, 식의 내용이나 개최하는 프로그램도 매년 별 차이가 없으나, 참가하는 청년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의식이며 이를 통해 성인이 되었다는 자각을 갖도록 한다. 청년대상의 전문강좌가 많은데, 강좌내용은 '지역소개' '청년과 여가활동' '인생의 생활계획' '사는 보람과 직업' '지방자치제' '일본의 정치' '세계경제의 동향' 등이다. 청년층이야말로 확실한 지역문화의 선도자들이므로 세부 분야별로 전문화시켜야 한다.

《《 자원봉사자 육성

최근 매우 중요시되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공민관은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봉사자를 위한 강좌나

학급 운영시 참가자에게 당번을 정해서 자주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강좌나 학습반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살리고, 기술향상을 위해서 자율적인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기 쉽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강좌를 마친 사람들을 동우회나 자원봉사회를 만들어 사후활동을 계속하도록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민관이 다른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연수회나 강습회를 개최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동기부여가 확실하므로 전문성으로 보완하면 더할 나위없는 지역문화도움으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다.

《《 공민관 직원의 연수

공민관 직원은 소수정예로 운영한다. 직원의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다. 공민관의 관장 및 주사는 사회교육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거나 공민관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총당한다. 한편 관장, 주

사는 공민관 운영의 중심적인 직원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과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한다.

공민관 직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은 연수, 진흥대회, 직원세미나, 연구회, 간행물 발간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걸보기로는 우리와 비슷하다. 직원연수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우 다양하다. 우선 시읍면교육위원회나 연합협의회가 시행하거나,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나 교육사무소가 시행하는 것, 문부성이나 교육연수원이 주최하는 것 등이다. 시군이나 교육사무소에서는 하루에 끝내는 연수를 매월 또는 일년에 몇 차례 개최한다. 이때 오전에는 사무연락사항과 협의, 오후에는 홍보·조사·연구라는 특정의 테마를 가지고 연수를 시행한다.

현에서는 2~3일의 연수를 2, 3회 시행하는 곳도 많다. 예컨대 石川縣에서는 직원강좌(기초강좌)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 신입직원은 빠짐없이 청강한다.

강습과목은 ① 공민관경영론, ② 사회교육개론, ③ 사회교육사, ④ 사회교육방법론, ⑤ 사회교육행정, ⑥ 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학점제로 하여 7학점 120시간을 2년에 수료하도록 되어 있다.

群馬縣의 경우는 ① 초임자(3년미만), ② 중견자(3이상-5년미만), ③ 주임주사(5년이상), ④ 관장, 운영심의위원의 4개 코스를 설정해서 매년 20시간 연수해서 각각 3년간 모든 과정을 수료하는 체계적·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업무 전문화와 지역문화리더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문화원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지역의 중심체로서 기능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성을 키우는 적극 교육을 다양화해야 한다.

《《 지역 인력뱅크로 기능

공민관은 주민들의 사회학습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운영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인력을 육성하고 인재 및 인력뱅크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운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하에서 주민참여에 의해 자율운영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인재뱅크 등록이나 파견과 달리 학습서클이 공민관에서 배양된 높은 학습성과를 활동의 일환으로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학습이 진전되면서 자연스럽게 집단의 교육적 효과에 의해 자원봉사가 육성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공민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인력전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다. 돈으로 하는 문화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과 정성으로 하는 문화활동인 것이다.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식이 힘이고 콘텐츠가 왕이다. 지역의 문화리더를 육성해 지속발전가능한 지역문화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공민관 사례에서 선발자의 잇점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있다.



글 _ 이흥재 |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문화정책 전반을 연구했다.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문화예술과 도시경제' '문화예술 경제학' 등을 저술·번역했다. hjlee@kcis.or.kr

문화관광축제 홍보 마케팅으로 승부 걸라



문 화관광부가 발표한 ‘제2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2008년)이 내다보는 목표 연도인 2008년에는 1인당 국민 관광 참여 횟수가 현재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두 배 가량 늘어나고, 현재 연간 530만 명 수준인 외래 관광객 수가 1000만 명, 관광 수입도 1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20위권 내의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웰빙 바람과 주5일제 근무 시행, 수도 이전 논의를 포함한 지방화, 고속철 시대 돌입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설명하는데 비교적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2배 이상으로 비약 성장할 국민관광 시대에 발맞추어 최대의 수혜자이자 일역(一役)을 담당할 지역 문화축제 담당자의 속내는 어떨까?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뒷전인 채 인력과 예산부족, 관, 민, 기업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실행의 부재, 홍보의 어려움 속에서 외부 관광객 유치 실패와 생계에 밀려난 지역주민 참여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분석’ 선결요건 ... 경쟁관계의 축제 벤치마킹해야

축제 전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문화관광축제의 목적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것이다. 지역 경제에 있어 관광 산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 민간 기업이 축제의 핵심사업에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관, 민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것이 축제의 중장기적인 인프라 구축과 안정되고 성공적인 축제를 보장하는 필수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축제는 일시적인 축제 기간을 위해 준비하는 일시적 이벤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상적 생활, 문화적인 환경과 지역 경제의 인프라, 역사, 자원 및 지역 상품이 총체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지역문화축제는 종합적인 문화상품에 기업의 마케팅 이론(Marketing Public Relation)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지역문화축제를 브랜드 이미지로 드높이고, 적극적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추진하는 각종 마케팅의 모델과 비교할 만하다.



축제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케팅 수립을 위한 시장 분석이 필수 조건이다. 누가 축제를 찾는가, 현 단계 관광 산업의 취향과 스타일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족 단위의 여가가 일상화 되고, 다양한 동호회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천도자기축제 등 모범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타 지역 축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금산인삼축제가 전국의 800여개 축제 중 전국최우수축제로 5년간 연속 선정된 비결은 무엇인가 면밀히 검토한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축제기간 중 하프마라톤 대회를 열고, 군이 적극적인 체험 참가신청 받거나, 다른 축제와 비교되는 금연운동을 벌이는 모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새로움, 편리함, 세련됨이 축제 성공의 키워드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는 많을수록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체험, 삶의 현장’ 같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된다. 독거노인을 위한 ‘하루 손자되기’ 프로그램, 대학시절 잊지 못하는 ‘농촌활동’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서

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루 일당 3만원 농촌일손돕기 프로그램 행사를 정기화하면 어떨까? 이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불우 노인이나 자라나는 새싹에게 기부하는 팁(Tip)도 권장할 만하다.

흔히 축제에는 그 지역만의 고유성(Essence), 차별성(Difference), 독창성(Originality)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레스토랑 T.G.I Friday’s의 마케팅 사례에 따르면 ‘새로움(New)’ ‘편리함(convenience)’ ‘세련됨(Sharp)’으로 표현된다. 같은 관광 상품도 진열이나 포장, 가공면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 편리함이란 곧바로 축제 전 기간에 걸쳐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드러난다. 시음, 시연회, 체험 프로그램 이외에 관광객을 위한 기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연구해야 한다. 서비스를 통해 축제는 내내 활기가 넘치기 마련이다. 차별화된 서비스는 입소문으로 이어져 웬만한 축제 PR비용에 맞먹는 효과를 나타낸다.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축제평가자료에 의하면 외부 관람객의 92.5%가 “다시 관람하러 오고 싶다”고 하여 관람객의 입소



문을 통한 축제 홍보에 큰 기여를 한 사례로 꼽힌다.

일반기업, 개인의 물품 지원, 협찬 제공 행사는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대상

업, 중소기업들의 제품홍보의 장으로 축제 한 권을 마련해 주고, 지역 특산물과 관련되는 신상품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다. 세련됨이란 남녀노소에게 화두로 작용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올해 김해 가락문화제에서는 본 무대에 인도연주단 '쌍짓 프렌즈'가 초청되어 '야유타에서 불어온 바람'이라는 총체극 공연을 한 적이 있다. 인도 아유타의 공주가 김해에 시집을 오며 불교가 처음 한반도에 전파되었다는 실화를 소재로 한 공연으로 '웰빙, 요가, 명상, 인도음악'을 한번에 감상할 기회였다. 나아가 인도 대사관과 제휴하고 국내

에 들어와 있는 인도기업 대표를 초청하거나 김해시 내에 상설적인 인도관 설립, 다양한 인도상품, 문물 전시 등을 벌여나가고자 하는 사업구상은 축제를 현대화하고 세련화하는 아이디어에 틀림없다.

축제 전시장 제작에 있어도 삼성동 무역전시장, 현대 백화점 등의 전시형태, 동선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축제의 감동을 주는 케치프레이즈를 축제 현장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자. 현대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갈수록 리모델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적절한 효과(Impact) 장치를 던져주면 된다. '메주가 걸려있는 할머니 빵'을 연출하는데 들이는 비용보다 실제 할머니가 사시는

은 일반 관람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연관이 되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기





방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시장점유율 · 인지도 높은 기업과 제휴마케팅도

광고를 가장 많이하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인 이동통신회사, 카드사, 자동차, 화장품, 은행, 체인 소매점 등의 마케팅 담당자와 당장 친분을 나눌 필요가 있다. 상대 기업의 인지도와 점유율을 활용하는 간접마케팅이기도 하다. 홍보 마케팅에서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에 열을 올리는 관심을 접고, 이런 회사들이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제휴 사업을 개발한다면 직접적인 고객유치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문화마케팅 시대에 기업 메세나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기업이 그동안 주로 관심을 갖아 왔던 큰 공연, 빅 이벤트에 못지 않게 지역 문화 축제는 이제 충분히 시선을 받을 만큼 부상하고 있다. 축제위원회 차원에서 기업 마케팅 담당자에게 팸투어 제공 서신을 보내 실제 축제를 체험하게 하여 자발적인 협찬지원 방안을 얻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축제 팸플릿, 포스터 로고 제작과정에 현금 후원이 아닌 물품후원이나 홍보후원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하면 마다할 데가 없을 것이다.

축제의 상업화는 상업주의를 경계하는 선에서 꾸준히 견지해야 할 축제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기업이 일상적인 지면광고를 집행할 시에 하단에 문구홍보를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공안을 제시한다는지, 기업 제품에 간접광고를

시도하는 마케팅이 지역문화축제에서도 심분 활용할 때가 온 것이다. 보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연일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의 관람객들의 불만,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을 때 대안 축제를 기획할 수 있다. 설문행위 자체가 축제를 보다 내실있게 꾸며 나가고자 하는 주최측의 노력을 엿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축제 기간에 다음 축제를 준비하는 실행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람객 집계, 성향, 연령 나이가 1:1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DB구축이 결코 먼 일은 아니다.

축제 홈페이지의 게시판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따라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현재 기업에서 회원관리와 DB구축은 이미 빼놓을 수 없는 주요업무가 되었다. 이를 위해 쿠폰제를 제안한다. 현장에 온 관람객에게 세련된 쿠폰을 나눠주고 이를 인터넷으로 응모시 다음 축제에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관람혜택을 주는 것이다. 한번 보고 버려지는 기존 홍보물을 쿠폰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 축제를 준비하는 해당 지역 군, 민, 업체와 축제 홍보, 모객의 대상이 되는 참가자를 나누고 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해당 축제에 맞는 시장규모를 도표화해 볼 필요가 있다. 축제 소비자층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을 때 직접적인 외부 관람객 유치라는 최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게 얻는 이익(Benefit)이 무엇인가, 왜, 무엇을 보러 왔는가? 근본적으로 질문할 일이다. 콘서트장에서는 흔히 R(Royal), S(Special), A, B로 좌석이 구분되는데, 매출 극



대화, 다양화를 위한 세분화된 층에 맞는 마케팅이 도입된 것이다. 목표대상 설정(Targeting)을 불특정 다수로 정해 버리지 말고 사회적 지위, 연령, 지리적 위치, 직업, 축제 관람 이유 등을 따져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포지셔닝 전략수립과 확인절차 뒤따라야

결국 위 이야기는 포지셔닝(Positioning)에 해당이 된다. 사전적 의미에서 포지셔닝이라 함은 소비자의 마음 속에 자사제품이나 기업을 표적시장·경쟁·기업 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 어떤 포지셔닝 전략을 사용하든 제품을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징·제품효익·사용계기·사용자 범주 등이 근거로 이용되며, 다음과 같이 5단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다.

- ① 소비자 분석으로 소비자 욕구와 기존제품에 대한 불만족 원인을 파악한다. ② 경쟁자 확인으로 제품의 경쟁 상대를 파악한다. 이때 표적시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쟁자가 달라진다. ③ 경쟁제품의 포지션 분석으로 경쟁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받는지 파악한다. ④ 자사제품의 포지션 개발로 경쟁제품에 비해 소비자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사제품의 포지션을 결정한다. ⑤ 포지셔닝의 확인 및 리포지셔닝으로 포지셔닝 전

략이 실행된 후 자사제품이 목표한 위치에 포지셔닝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때 매출성과로도 전략효과를 알 수 있으나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관한 분석을 해야 한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쟁환경과 소비자 욕구가 변화하였을 경우에는 목표 포지션을 재설정하여 리포지셔닝을 한다.

“우리 축제, 구경오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를 진실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축제 소개들은 보고용 공문서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04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강진청자문화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흙과 불 그리고 인간의 혼이 결합 하여 천년신비 비색 고려청자를 부각하여 단순하면서도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구경하고 체험하지만 또한 구매하는 축제 판매(Sales)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민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는 축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색다른 축제 프로모션 툴 개발할 때

축제 프로모션(Promotion)은 다양한 툴(Tool)을 이용하게 된다. 기자초청 투어, 국내외 관광설명회, 기자간담회, 전시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로 활용되고 있다. 인쇄광고물, 리플렛, 포스터 등은 익숙하게



선택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효용가치가 천차만별이다. 색다른 이벤트 개발의 좋은 사례는 지난 영암문화축제 서울 가장행렬의 예를 들 수 있다. 축제를 개최한 영암군수가 서울 인사동으로 상경해 직접 왕인박사역을 한 가장행렬을 벌여 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아당겼고 이를 문화관광 전문 홍보대행사인 컬처플러스가 언론 홍보함으로써 신문, 방송의 화제 거리가 되었다.

팸(Familiarization) 투어는 사전에 축제를 답사하여 예정된 축제를 미리 홍보하는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지방 문화 축제 조직위간의 공공마케팅 노력을 기울인다면 축제 준비에 대한 고심을 한번에 날려버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동중, 이종의 축제 조직위끼리 자매결연을 맺고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심지어는 관람객 DB교환과 노하우 공유도 적극 추진할 일이다. 여기에 효율성의 논리가 적용된다.

국내 공연기획사 크레디아는 제휴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이다. “서로 돕는다”는 품앗이 마케팅이 빛을 보는 순간이다. 공중파 드라마나 영화 등에 장소, 물품 등을 협찬함으로써 누리는 간접 광고효과도 무시 못할 프로모션 방법이다.

지역문화축제의 성공비결

이는 공공 대중에게 그 지역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드라마 세트장 활용은 그간 수동적으로 간택(?)되는 경향에서 적극적인 지역 유치로 변모하고 있다. 방송 관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진짜 ‘비경(秘境)’을 꾸준히 소개한다면 마다할 PD가 없을 것이다.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 220여개 되는 전국문화원연합회 같은 각종 공공기관의 홍보, 판촉 의뢰 또한 보다 적극적 활용해야 한다. 기존에 이미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툴(Tool)이 무감각해져 그 활용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는 정부기관에게 책임이 있다. 지역문화축제 담당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 정부기관 조직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차근 차근 설명해야 한다.

지역문화축제의 성공은 축제조직위원회의 고심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문화, 예술계가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통영국제음악제, 거창국제연극제, 대관령음악축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 등은 문화, 예술계가 지역과 어떻게 소통하고, 축제의 질을 보장하는지를 잘 웅변해 주고 있다.

취재 _ 이근삼 기자

문화관광부 발표 '관광진흥 5개년 주요사업'을 보면...

△관광 개발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관광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관광산업 투자유치 촉진 △온라인 관광 인력은행 설치, 관광사업 업종 개편, 관광 사업자 단체 기능 활성화(교육, 자격증 관리, 통계), 지역관광 통합정보 및 예약망 구축, 우수 문화관광상품 인증제도 도입 등에 의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관광 이미지 조성 및 홍보 마케팅 강화 △한국전통숙박시설 확충 지원, '관광숙박시설 인증제' 등 관광기반시설 확대 및 수준 제고 △한국 -브랜드 상품 및 전략시장별 관광상품 개발 △출입국 관광 편의 및 국제관광 교통체계 개선 △'동북아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에 따른 동북아 및 남북관광 교류협력 강화

21세기 초 문화 신드롬 해리포터

최근 개봉된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인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영국작가 J.K.롤링의 연작소설로 제1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제2편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제3편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제4편 '해리포터와 불의 잔' 그리고 5편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이 출간돼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해리포터는 고아 마법사인 주인공 소년의 이름으로 21세기 초 세계 독서계를 풍미하는 일종의 문화적 표상이자 신드롬이 되었다. 해리포터는 소설의 죽음과 문학의 위기, 그리고 문자매체의 퇴조를 우려하고 있는 요즘 해리포터 돌풍은 먼저 작가가 죽어가는 문학과 사라져가는 문자매체를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되살려 놓았다는데 있다. 즉 해리포터 시리즈는 새로운 상상력만 개발하면 문자문화도 얼마든지 영상매체, 전자매체와 경쟁하거나 그것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문화의 등줄기 백두대간



긴 여행을 떠날 때 한번쯤 고려해 볼만한 장소가 백두대간이다. 이 땅의 등뼈를 이루는 산줄기, 그것이 바로 백두대간이다. 한 그루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는 백두산이고 정점은 지리산이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동안 뿔어 내린 가지는 열넷. 1개의 정간과 13개의 정맥이 그것이다.

함경북도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 가에 이르는 장백정간과, 청천강 이북의 청북정맥에서부터 한반도의 서남단을 휘돌며 삼진강의 울타리 구실을 하는 호남정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줄기는 백두대간에서 비롯된다.

백두대간의 진실은 단순히 산맥의 오류를 넘어서는데 있는 것만이 아니다. 쉬운 예로, 문화권이라는 것이 인위적인 행정 구역이나 산맥 개념의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산줄기에 의해 모듬지어진다는 사실만

으로도 그 중요성을 헤아릴 수 있다. 백두대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경제, 예술을 이해하는 우리 삶의 실체를 성찰하는 일이다.

산새

소나무 숲이 우거진 내 고향 마을에는
 산새들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본다.
 곁으로는 바다같이 파랗게 보이지만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우수수 떨어지는
 솔잎처럼 언제 질는지 알 수 없는
 작은 목숨의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서 등허리에 땀흘리며
 천년만년 살아갈 듯이
 욕심을 내던 사람들, 그러나
 어느새 바람 탄 솔잎처럼 떨어질 때엔
 여기에 이른 것이 한없이 아쉬워서
 만장(晩章)을 지어 앞세우고
 끼이끼이 우는 자식들 뒤따르게 하며
 하늘에 알리듯이 펼럭이는 상여 속에
 묻히어 가던 그 마을의 사람들,
 산새는 언제나 그들을 보고 있다.
 그들이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산새는 모두 알고 있다.



시인 김년균(金年均)

1972년 이종주 선생 추천으로 등단하여 시집으로는 '정파' '갈매기' '바다와 아이들' '사람' '물있는 자리나라' '아이에서 어른까지' '사람의 마음' '하루' '오래된 습관' 등이 있다. 제 20회 한국현대시인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心野

사람의 가슴 마다에는
들판이 있습니다
당신의 들판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나요?
이제 가을여행을
떠나세요!
들새 우짖는
당신의 들판으로 ...

글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농촌미래 ‘농촌관광’에서 찾는다



F TA확대, 쌀협상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불안정,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농촌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생산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촌의 잠재적 자원을 활용해서 농외 소득을 증대시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는데 그 핵심이 농촌관광이다.

농림부의 장태평 농정국장은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농외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다”며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 농촌관광 등의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시대, 차별화가 살길

실제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위기의식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임박해지면서 정부 각 부처가 농촌관광 관련 시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 관련 사업은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업진흥청 ‘전통테마마을’, 행정자치부 ‘정보화시범마을’, 농협의 ‘팜스테이마을’ 등 6개 부처 11개사업으로 약 500개 마을이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촌관광 마을개발은 도입기를 지나 양적인 확대기로 접어든 상태이며, 이제 질적 도약을 모색할 단계에 왔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수의 농촌관광 마을이 개발되었음에도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획일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SERI(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 연구원은 농촌관광의 문제점을 “행정의 획일적인 선정기준과 융통성 없는 사업시행체계가 문제이며, 주민들의 판에 박힌 아이디어, 전문가들의 막연한 전망과 기대”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백인백색(百人百色)인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맞추고 동시에 마을의 개성을 살려야 하는 ‘맞춤시대’를 강조한다. 즉 ‘세계최대, 최초’가 아닌 세상에 하나뿐인 ‘온리원(Only One)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촌관광 마을의 차별화는 있지만 주목하지 않았던 마을의 자원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덧붙여 상품화하는 안목에서 출발한다는 것.

강신겸 연구원은 먼저 ‘비전과 사업영역의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국의 마을수는 출잡아 4만7천개. 도시민이 기억하고 다시 찾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마을과 구별되는 특성이나 개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테마는 필수다.

또한 강연구원은 상품과 과정의 차별화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을의 대표 농산물과 브랜드를 만들어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재미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

도 중요하듯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통해 낼 수 있는 농촌관광 주체들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농교류센터, 농촌관광마을 지원 육성

농촌관광의 인프라도 속속 건설되고 있다. 농촌과 도시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문을 연 도농교류센터는 침체된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게 된다. 도농교류센터 김영성 소장은 “도농교류센터는 농촌투자 유치 업무와 함께 농촌관광마을 지원 육성, 관광자원 개발, 농촌관광마을 교육·홍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1개 기업체와 1개 농촌마을이 결합하는 ‘1사1촌 결연’ 운동을 통해서 추진해 도농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야흐르 농촌관광의 기반과 여건이 조성된 만큼 담당 주체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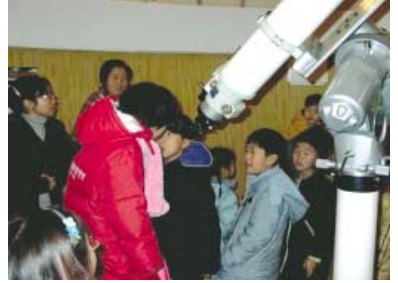
취재 _ 김준호 기자
자료제공 _ SERI(삼성경제연구소)

농촌관광 모범사례

하늘의 별을 파는 마을 '별마을'

충남 서산시 오학리. '별마을' 주민들은 '별'이란 차별화된 테마로 마을 천문대와 체험시설,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추억과 상상력을 판다. 별마을은 해미읍성 옆에 있으며, 전체78가구 약 200명이 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 가운에 50가구가 농가로 대부분 농농사를 짓고 있다. 이러한 '별마을'은 지난 2002년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변신을 했다. 방송국 PD출신으로 이 마을에 귀농한 장범용씨, 이 마을 출신으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김광일씨 등 마을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찾은 끝에 '별마을'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어 사업비 2억원으로 소형 천문대와 강의실과 숙소를 갖춘 체험관을 2003년 11월에 완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촌관광사업이 시작되었다. 천문대가 세워지고 도시민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무관심하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금년부터 "상상력과 꿈을 키워드립니다"란 캐치프레이즈로 '가족단위 별자리여행', '별자리서당' 등 천문대프로그램과 '오리농장체험', '장담그기' 등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지금까지 약 500여명이 다녀갔다.



마음을 담은 농촌형 펜션 '별빛사냥펜션'

강원 평창군 평촌리. 김기태씨는 '마음을 담은 농촌형 펜션'을 만들었다.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펜션을 운영하는 김씨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마음을 담은 농촌형 펜션의 성공조건을 제시한다. 김씨는 펜션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1996년 6월 시작하여 8년간 운영해왔으며, 펜션이 요즘처럼 변질, 왜곡되어가는 현실이 크게 우려되는 바, 펜션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펜션은 어디까지나 자연과 어우러져야 하며, 손님은 주인 가족이 손수 맞이해야 한다. 농촌형 펜션은 결코 돈벌이에 목적을 둔 부동산투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마음과 인심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김기태씨의 주장. 펜션은 도시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재배지가 볼거리가 되고 판매와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생활을 즐기려 찾아온 도시민들에게 제가 손수 담 흘려 가꾼 농산물을 나누어주고, 허물없는 인간적 교류를 통하여 적절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 농촌주민들이 펜션운영으로 도시민을 자주 접촉함으로써 '소비자'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갖추어진다면,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농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과 도농교류 '천지원농원'

전북 김제시 백산면. '천지원'은 유기 농산물을 재배,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천지원의 대표농부로 영농조합을 이끄는 김병귀씨는 명태잡이 원양어선을 탄 후, 몸이 망가져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귀농, 유기농을 시작하게 되었다.

유기농산물은 생산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판로개척이 중요하다. 천지원에서는 도시민들을 농장으로 초청, 직접 직접농사를 짓는 일에 참여하면서 도시민과 농민들 간에 신뢰를 쌓는 방법을 택했다. 덕분에 동네 음식점과 슈퍼에서 시작한 판로는 대형백화점과 마트에 매장을 개설하기까지 되었다.

김병귀씨는 "소비자들이 초청, 시설은 허름하지만 농촌의 푸근한 인정을 느끼면서 신선한 유기농산물을 맛 볼수 있도록 하는 소박한 농촌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원에서는 일회적인 교류행사에서 벗어나고자 그린데이(greenday)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공해에 찌든 먹거리에서 벗어나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보자는 캠페인이다. 천지원을 찾은 고객들에게는 천혜의 자연풍광을 갖고 있는 인근 '수류마을' 마을을 연계하여 편안히 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기 '일사일촌운동' 토고미마을

삼성전기는 지난 2002년 가을부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의 토고미마을에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행사가 즐거운 직장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은 가족과 함께 오리 방사, 미나리 뜯기, 물고기 잡기, 떡메 치기, 우마차 타기, 텃밭 가꾸기 등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삼성전기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직원들에게 제공할 휴식공간을 찾다가 유기농 농산물의 판로를 고민하고 있던 토고미마을과 인연을 맺게 됐다. 이후 삼성전기는 토고미마을의 폐교를 개조해 강의실, 숙박시설, 식당 등을 갖춘 자연학교를 만들었다. 계절마다 평균 250여명씩, 지금까지 약 1,000여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토고미마을을 방문해 자연친화적 생활을 경험했다.

올 3월에는 토고미마을의 유기농 산물을 들여와 수원 본사 직원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유기농 농산물 식단체를 운영, 호응을 얻어 매달 한 번씩 유기농 식단체를 시행기로 했다. 삼성전기와 인연을 맺은 뒤 토고미마을은 연간 1억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얻게 됐고 오리를 이용한 무농약 유기농쌀인 '오리쌀' 등 다양한 특산물과 유기농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까지 마련했다.



〈농촌관광, 미래가 보인다〉 심포지움

쉽고 재미있는 농촌관광 연구발표의 장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중앙일보, 농업기반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농촌관광, 미래

가 보인다'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는 마을, 농가, 기업 등 다양한 농촌관광 실천사례가 발표됐다.

이번 심포지움이 열린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은 객석으로 꽉 차 농촌관광의 정책적 비전과 다양한 농촌관광의 사례를 통한 정보교류가 이뤄졌다. 제1부에서는 장태평 농림부 농정국장이 '새로운 농업환경변화와 지역농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농촌관광의 다양성과 차별성'에 대해 발표한 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 박사는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박사는 "농민들 스스로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안목과 발상의 전환으로 창

의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 2부에서는 농촌관광을 접목한 체험마을, 농가, 펜션, 기업, 지원기관의 사례가 발표됐다. 농업기반공사 김영성 도농교류센터소장은 '도농교류센터 100% 활용하기'란 제목으로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교류와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농교류센터의 역할과 사업을 설명하면서 농촌주민과 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약 500명의 농촌주민들과 도시민들이 참석해 농촌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충남 서천군과 강원도 평창군, 전북 정읍시에서는 지자체에서 아예 군청 버스를 빌려주어 주민들을 보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참석자들로부터 기존 심포지움의 틀을 벗어난 '쉽고 재미있는 심포지움'이란 평을 받았다. 사회를 맡은 민승규 박사의 예정에 없던 깜짝 강의를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아이디어'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문화예술위원 11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11명이 같은 성향의 인사들로만 채워지는 것도 결코 아니죠.
11명 위원회는 일종의 상원 개념이며
그 밑에 분야별, 사업별 소위원회에 총 150여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편파지원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현기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문화예술위원회는 주류·아웃사이더 고루 지원하는 토대될 것”

‘우리문화’와의 인터뷰 예정 시간에서 10여분 늦게 나타난 현기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다. 지난 7월 19일 오후 현원장이 다녀 온 곳은 국회 의사당. 최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는 그는 그날도 위원회로의 전환 문제에 대한 일을 보고 나서 다소 늦게 도착한 것이다. “문예진흥원은 지난 30년 동안 정부산하기관으로서 관료적인 습성이 크게 베어 있었습니다. 기금지원도 기계적이고 단일한 소액다건식 배분에 그쳤죠. 그런데 위원회로 전환하게 되면 민간 주도로 실질적인 문화예술의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이후 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기영 원장이 취임한 이래 문예진흥원은 새로운 기운이 일고 있다. 각종 공연티켓 등에 부과되던 매년 500억 규모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른 대체 재원마련에 동분서주하는 한편,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과정에서 다분히 폐쇄적이었던 문예진흥원이 예술현장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는 민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로의 변화는 한걸 민주화된 방식”

현원장은 “문예진흥원은 그 동안 관료적으로 비쳐지고 운영이 보수적이었다”며 “전통적인 주류 예술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소외되었던 실험적이고 아웃사이더적 예술에도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현원장의 문예진흥원 운영 방침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문예진흥원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될 경우 이른바 ‘코드 맞는 인사들끼리의 독식’을 우려하며 일부 문예 인사들은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원장은 문화예술위원회로의 변화는 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제도 보다 힘이 분산되는, 한걸 민주화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문화예술위원 11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11명이 같은 성향의 인사들 로만 채워지는 것도 결코 아니죠. 11명 위원회는 일종의 상 원 개념이며 그 밑에 분야별, 사업별 소위원회에 총 15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편파지원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는 또 문화예술위원회가 특정 장르가 아닌, 문화예술 전 반에 기본적 소양과 식견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며, 의사 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려하는 인 사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병행해서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진 찬동 법안을 만들어 내는데 힘을 쏟고 있다.

현원장은 지방문화 활성화에도 관심 이 높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 등 의 지방분권 역시 문화분권이 가능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 수도 이전은 문화거점에도 변 화를 가져오는 시너지를 유발 하는 아주 좋은 발상 이라고 봅니다. 훌륭한 작가, 예술가가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현상은 옳지 않습니다. 문 화예술인들의 지방분산이 필요해요.”

지방 문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금년 하반기에 360억원의 예산 책정해 놓고 있는데 전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서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에 위치한 문 예회관 역시 지방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 · 문화예술인 지방분산 절실해

현원장은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출판계에도 근본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문예진흥원이 발간한 ‘문 예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신간 도서의 발행량은 3만5천여 종(학습 참고서, 만화 포함)에 1억1천45만여 부로 집계됐 다. 이 같은 수치는 2002년 같은 기간에 비해 종수로는 2.3%, 부수로는 5.1%가 각각 감소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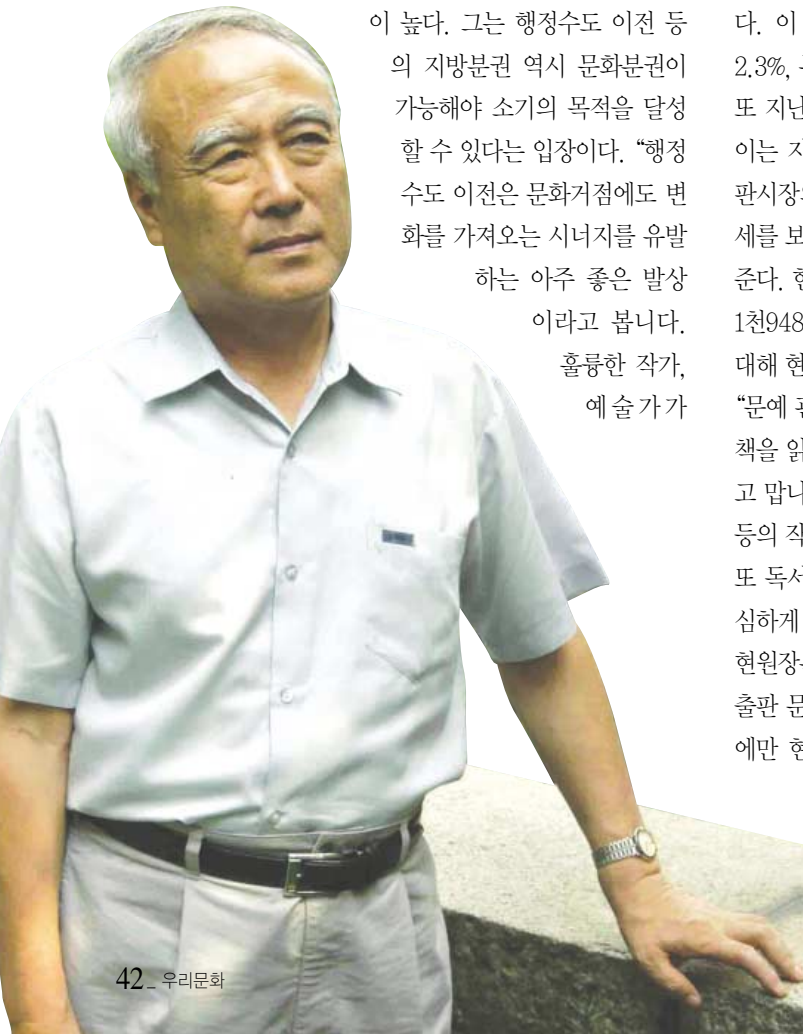
또 지난해 출판시장 규모는 2조4천4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7년 4조원을 넘어 최고조에 달했던 전체 출 판시장의 규모가 1999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점차 회복 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한 종당 평균 정가 역시 1만975원으로 2002년도 1만 1천948원에 비해 8.1% 감소했다. 이러한 출판계의 불황에 대해 현원장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문예 관련 출판물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책을 읽지 않으면 10년 후 국민의 상상력, 창의력은 고갈되 고 맙니다. 현실이 심각해요. 괜찮은 작가들의 소설이나 시 등의 작품이 1천부 정보 밖에는 찍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독서 패턴도 주로 처세물이나 오락물에 치우쳐 있지요. 심하게 본다면 ‘문예물 무늬야’가 양성되는 형태이죠”

현원장은 문자를 지배해야 비로소 세계지배가 가능한 만큼 출판 문화의 중요성이 크데도 현 재 분위기는 너무 이미지 에만 현혹되는 것이 아니냐며 문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출판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독서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학을 희생시키기 위해서는 문학 소비자를 증





가시시켜야 합니다. 정교한 독서운동을 통해서 책을 읽는 풍토를 정착시켜야죠.”

현원장은 얼마 전 인기리에 일시적인 독서 붐을 일으켰던 이벤트성 독서 관련 방송 프로그램 보다는 도서관 사서활동을 강화한다거나 사회단체가 연합해 전 국민의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근본적인 독서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41년 제주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난 1975년 등단한 현원장은 제주 4.3 항쟁을 다룬 ‘순이삼촌’과 ‘아스팔트’로 제주도민의 한을 문학으로 풀어 낸 바 있고 ‘변방에 우짖는 새’로 80년 전의 이재수 난을 형상화 했으며, ‘바람타는 섬’으로 60년전 해녀들의 항일투쟁을 다루는 등 제주도의 모순을 중심에 두고 작품활동을 해왔다.

고향인 제주도는 현원장 작품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펴낸 ‘지상에 순가락 하나’ 역시 자전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유년 시절 남도 제주의 대자연이 펼치는 서정을 풀어낸다. 여기에는 4.3 항쟁과 한국전쟁 등 제주 현대사의 심장부를 흐르는 서사성도 교차한다.

작가는 시간 저편에서 명멸하는 기억의 편린을 꺼내 그리움과 아픔으로 하나하나 들려준다. 어머니가 옷을 가져간 줄도 모르고 헤엄치다가 여자애들이 불세라 불알만 잡고 뛰던 똥강이와 입속까지 흘러내리던 국수가락 모양의 코를 한순간에 들이 마시는 누렁코, 높다란 먹구슬 나무를 겁없이 타고 오르는 나무타기도사 웅장이가 바로 그들이다.

2000년대는 역사성·일상성 접목한 문학 나와야

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소재목을 붙여가며 이어나간다. 대장간, 종기, 전깃불, 유리구슬, 도깨비 등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어린시절의 삶을 구슬처럼 엮어 자신의 성장사와 그 시대의 풍속도를 내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읽다보면 소설이라기보다는 수필에 가깝다는 느낌마저 든다.

문예진흥원 원장이기 전에 치열한 서사 문학을 추구하던 소

설가 현기영이 바라보는 문학계의 흐름은 무엇일까?

“80년대 문학은 민족, 민중, 역사, 이념 등이 소설과 시의 소재가 되는 이

른바 거대서사로서의 문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당시 제주 4.3 항쟁을 소재로 소설을 썼지요. 반면 90년대의 경우에는 개인의 일상과 삶에 궤적을 맞춘 개인의 실존이 중요하게 부각됐어요. 일상생활에 집착하다보니 문학이 너무 왜소해지고, 그것이 독자로부터 거부당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2000년대에는 80년대의 역사성과 90년대의 일상성을 동시에 고려한 문학이 대두되어야 하겠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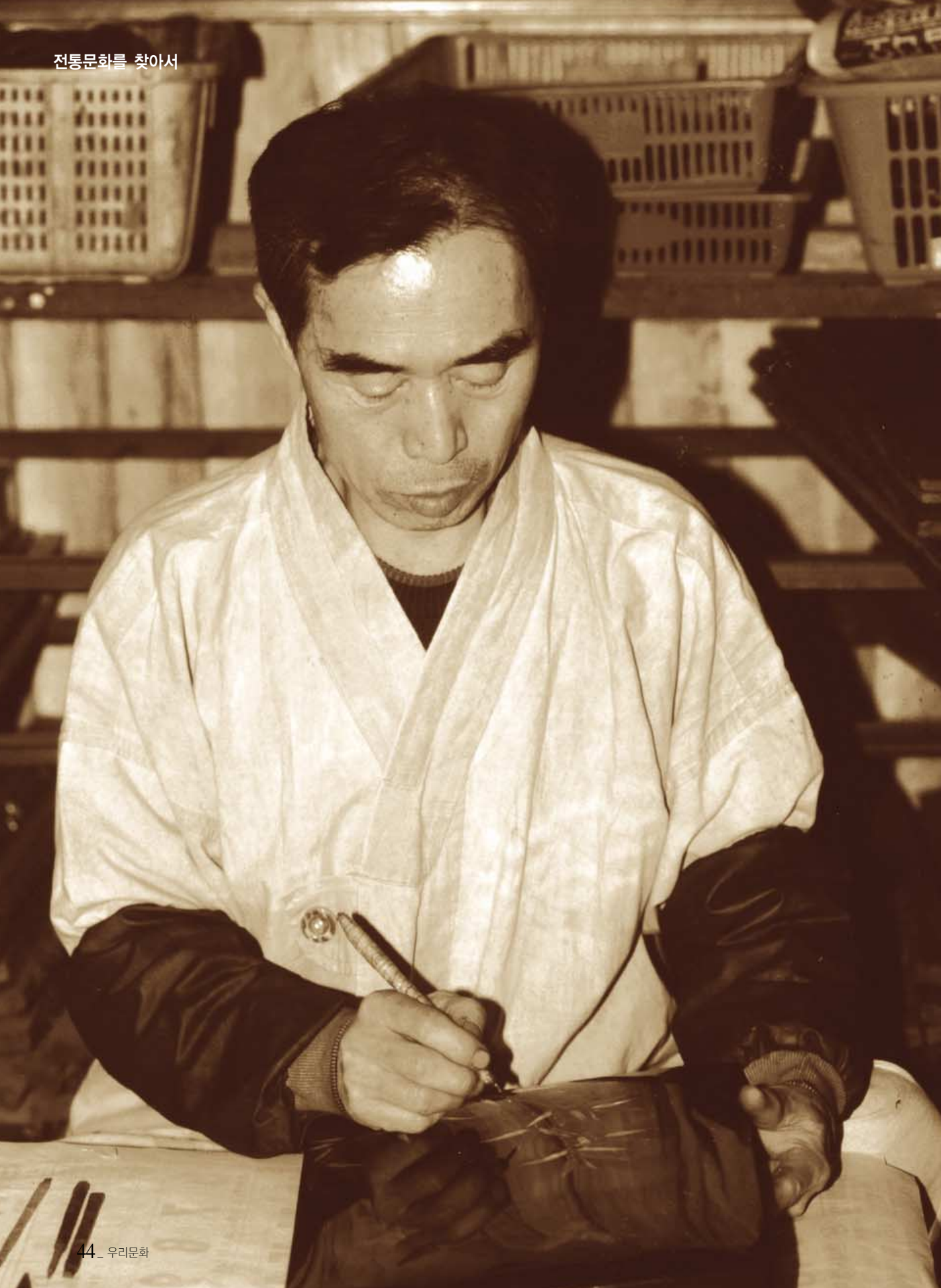
현원장은 서해안 지역의 초야로 돌아가서 자연 그대로의 삶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글로 남기고 싶은 소망이 있다.

현원장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원에도 관심이 높다. 문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는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문화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나름대로의 개성있는 문화가 구축돼야 합니다. 연꽃 축제나 반딧불 축제 등 각종 축제문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먹거리가 동원되는 축제성 보다는 그 지방 나름의 역사와 풍습에, 자연에 입각한 문화와 예술이 살아날 수 있는 고유한 지방문화가 정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 도민들의 한을 문학적으로 승화해 작품세계에서 구현하던 한 소설가는 문화예술진흥원의 수장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정책을 진두지휘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인터뷰 내내 조용하지만 소신에 찬 답변을 전한 현원장의 모습에서 문예진흥원의 위원회로의 정책 전환이 믿음직스럽게 다가왔다.

취재 _ 김준호 기자



우리나라 칠문화는 옷칠바탕에 영롱한 자개의 조화로
 그 단아한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왔다.
 10대 시절 옷칠공예에 뛰어들어 장인의 길을 묵묵하게 걷고 있는
 김소장에게는 옷칠공예품의 단단한 분위기가 풍겨온다.

전통칠기연구소 김차봉 소장

옷칠공예 '40년 외길' 발명특허만 3건...



여러분들은 옷칠을 아는가?

어떤 사람이 옷칠을 잘못 만져서 몇 날 며칠을 호된 가려움증으로 시달린 적이 있다면 아주 안 좋은 추억으로 옷을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옷은 잘 정제만 하면 약재와 도료로 두루 쓰이는 뛰어난 약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옷칠은 동아시

아권 일부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도료다. 우리나라 칠문화는 일본이나 중국의 지나치게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과는 달리 검은 옷칠 바탕에 영롱한 자개의 조화로 그 단아한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왔다.

중요무형문화재 김태희 옹에게 옷칠 사사 받아

이러한 옷칠 전문가가 아천 전통칠기연구소 김차봉 소장이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위치한 아천 전통칠기연구소는 김소장이 옷칠공예를 연구하며 직접 공예품을 만들고 상품화하는 전통칠기의 노하우가 가득한 곳이다. 김소장은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말로 하기 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며 옷칠 공예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국그릇,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커피잔, 술병 등 그의 문화상품은 다양한 용도와 예쁜 옷칠 작품들이었다.

그는 옷칠 공예품들을 어루만지면서 자신과 전통칠기와의 인연을 풀어놓았다. 경남거제 출신인 그가 옷칠공예 분야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은 56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는 목수인 사촌형님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무 다루는 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 가까운 통영나천칠기 기술원 양성소 야간반에 들어갔다 평생을 옷칠분야에 몸담게 됐다. 이후 그는 나천

칠기 중요무형문화재인 민중태·김태희 선생에게 잇따라 사사 받음으로써 옷칠 장인의 길에 들어선다. 특히 김태희옹은 그를 10년 동안 수제자로 삼고 임종 전 일종의 졸업증서격인 낙관을 찍은 백지를 넘겨줬을 정도.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공정이 까다롭고 힘든 옷칠을 생활용품의 도로로 사용했는가를 이제야 알 듯 합니다.” 김소장은 단순히 칠을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옷의 성질이나 효능을 조사해 나갔다. 그의 칠기와 관련한 이력은 화려하다. 지난 65년부터 삼성그룹 공예철부, 동일가구 나전칠기



국내외 순회 작품전시회 가져

이렇듯 제작과정은 칠과 건조의 반복 작업이 계속 이어진다. 그릇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칠이 되기 전인 나무를 백골(白骨)이라고 한다. 백골의 재료는 모든 나무가 가능하지만 그릇은 주로 계목과 물푸레나무가 많이 이용된다. 건조된 나무를 상품에 따라 적당히 절단해 건조검사를 하고 건조가 확인되면 그릇의 모양을 만드는 1차로 초벌 깎기를 한다. 초벌깎기한 나무는 다시 약 1개월간 건조하고 다시 2차 깎기 작업으로 이어진다. 여기까지의 상태가 좋은 나무만을 이용해 다시 3차 깎기를 하고 완성되면 결이 곱도록 사포로 문질로 표면을 부드럽게 한다.

예전엔 백골작업도 직접 했지만 지금은 이 작업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전문업체가 생겨 그나마 수고로움을 덜었다. 백골이 완성되면 이제 본격적인 칠작업이 이어진다. 우선 백골에 묻은 먼지를 깨끗이 털어낸 후 옷칠을 한다. 이때 하는 것을 생칠이라고 하는데 생칠은 옷나무에서 채취한 진에 아무 것도 넣지 않은 순수한 옷나무 진을 칠하는 것을 말한다.

김소장은 이처럼 매우 복잡한 공정을 통해서 한 개의 작품을 만들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의 칠기 분야에 종사해 온 것이다. 그 동안 전통을 계승한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연구, 개발해 3건의 특허를 받고 전국 순회 작품전시회와 한·러 국제민속공예교류전 등을 통하여 나전칠기의 멋을 국내외에 전파함으로써 우리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온 것이다.

특히 김소장은 옷칠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옷이 항균효과와 방습성이 탁월하고 섭취시 장에 좋다는 것을 발견했다. 옷칠의 우수성을 몸으로 체득한 그는 옷칠제품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소품제작에 뛰어들었고 이와 관련한 발명특허 3건을 받은 상태이다.

“옷이 부패방지와 항균효과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은 팔만 대장경에서도 알 수 있지요. 700여년의 세월동안 대장경의 표면이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은 옷칠덕분이라는 사실은 칠이



공예부의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80년부터는 원화칠기공방을 차려서 직접 칠기공예사를 경영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96년에는 문화재 수리기능 자격증(제1737호)을 취득했고 각종 칠기 공모전의 입상은 물론, 99년에는 ‘경기 으뜸이’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소장은 칠기 공예과정을 소상하게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목칠공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칠과 건조. 칠이 어떻게느냐에 따라 나무의 결과 품격이 달라지고 건조상태에 따라 그릇의 모양과 틀이 달라진다.

벗겨진 부분만 유독 훼손이 심했던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옷에 관한 내용들을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제품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김소장이 만든 제품들은 부부차잔세트나 스푼, 포크, 주병세트, 찻잔세트, 포크와 영롱한 자개빛이 돋보이는 수정 등 단아한 아름다움이 살면서도 매우 실용적인 옷칠공예품이다. 이런 제품들은 테이블세팅이나 테이블웨어 같은 것을 잘 응용하면 외국의 유명 테이블웨어 못지 않은 환경친화적인 식기가 될 수도 있다.

최소한 10번 이상의 옷칠을 반복해야 완성한다는 옷칠공예, 그에 따른 부수적인 노동도 만만찮은 그 일을 수십 년간 해 온 김소장은 그 못 말리는 열정에서 비롯된 부지런함으로 후학양성을 위해 한양대 대학원에 출강했고 명지대대학원도



다니는 등 철기공예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옷칠공예가의 삶이 예나 지금이나 매우 척박한 터라 아쉬움도 크다. “가끔은 내가 살아온 외길인생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남들은 40세에 박사학위를 따는데 이 분야는 60이 넘어도 박사학위를

맡 수 있나요? 그렇다고 정부로부터 용자받기가 쉽나요? 그러니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공예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돼야

김소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한다. 우리도 문화상품 개발을 촉진하려면 일본처럼 공예가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창 활동을 하던 시절 일본의 한 호텔의 ‘아사원’이란 일종의 국빈관을 증축하면서 나전칠기로 건물을 치장하기 위해서 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나전칠기로 꾸민 전통건물이 없잖아요. 이 사례에서 보듯 일본은 공예가를 인정하고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공예가들에게 ‘부동산’이 아닌 ‘기술’과 ‘신용’을 담보로 융자해 주거나 각종 공예품 공모전에 학계만이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예인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풍토가 조성돼야 우리나라 공예품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묵묵하게 인터뷰에 응하던 김소장은 철기공예가의 처우문제가 나오자 목소리의 톤이 올라간다. 그만큼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서운함이 배어 있는 있었다.

인간이란 혹은 한 인간의 삶이란 기실 한 꺼풀 벗겨 놓으면 연약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김소장의 삶도 다른 사람과 그리 다르지 않아 상처와 고난이 많았지만 그는 장인 특유의 기질로 끝없이 자신의 삶위에 옷칠을 거듭해 왔다. 이제 김소장은 옷칠공예를 통해서 인생의 독을 잘 정제해 오히려 인생의 약으로 삼아 달관한 상태였다.

10대 시절 옷칠공예에 뛰어 들어 장인의 길을 묵묵하게 걷고 있는 김소장에게서 옷칠공예품의 단단함과 단아한 분위기가 풍겨온다.

취재 _ 김준호 기자



오일장에 가면 삶의 향기가 느껴진다. 물건을 팔고 사면서
흥이 넘치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로 늘 왁자지껄했다.
깎자느니 마자느니, 권커니 잣커니, 고함과 떡살잡이가 어우러져
질박한 우리네 삶이 장국밥처럼 따스한 오일장.
전국의 오일장 가운데 시골풍경이 남아 있는
몇 곳을 소개한다.

오일장

도심에 찌든 당신 '코등치기' 한사발 어때요?

여행삼아 기차타고 가는 정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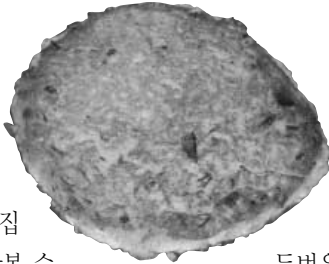
강원도 정선장은 전국의 오일장 가운데 유일하게 관광상품화된 장이다. 정선장날(2, 7일)이면 청량리역에서 정선까지 관광 열차가 운행한다.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이지만 많은 날은 500명이 넘는다. 곳곳한 시골풍경이 그리운 도시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정선장에는 인근 첩첩산중에서 나는 나물이 지천으로 깔려 씹쌀한 향이 가득하다. 고사리 같은 산나물과 황기, 약초, 곤드레나물, 찰옥수수, 더덕, 송이버섯 등 계절에 따라 나오는 게 다르다.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이를 자세히 보면 가슴에 이름과 주소지 등이 적힌 명찰을 단 사람을 볼 수 있다. 정선군청에서 지역 상인을 보호하고 파는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들에게 물건을 사면 틀림없이 정선에서 나는 것들이다. 정선장에는 산골지역 특유의 재미나고 맛있는 먹거리가 풍성하다.

코등치기는 메밀로 만든 국수인데, 면발을 쪽 들이키면 면발이 콧등을 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점잖게 먹으면 절대 콧등을 치는 일이 없다. 한번에 쪽 들이켜야 면발이 요동을 치며 콧등을 때린다. 옥수수가루로 만든 올갱이국수라고도 있는데 모양이 꼭 어린 올챙이를 닮았다. 무쇠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부친 메밀전이나 감자부침, 메밀전병도 산골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돼지 똥국?’ 곡성장

지금처럼 먹거리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 특히 고기라고는 명절이나 이웃집 영감 환갑날이나 몇 점 맛볼 수 있었던 시골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가 돼지 먹따는 소리라고 한다. 돼지 곱창과 대가리를 가마솥에 넣고 푹 끓인 국에 막걸리잔을 돌려가며 먹는 맛 때문 이리라.

전남 곡성장(3, 8일)에 가면 예전에 먹던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 ‘돼지똥국’ 이라고 불린다. 똥국은 본디 ‘돈(豚)국’에서 경음화 되었거나, 곱창에서 나는 누린내를 빗대어 불리웠을 법하다. 곡성읍 여운천변에서 열리는 곡성장에서 똥국을 파는 식당이 몇 군데 있다. 장날에만 식당을 연다. 곡성군 석곡장(5, 10일)은 돼지고기 석쇠숯불구이로 유명하다.



‘메밀꽃 필무렵’의 무대 봉평장

누구나 학창시절 한두번은 읽었을 법한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무렵’의 무대가 되었던 봉평장(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지금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2일과 7일에 장이 선다.

소설 속의 허생원과 조선달, 그리고 무수한 장돌뱅이들이 지친 여정을 풀었던 충주집. 소금을 뿌린 듯이 메밀꽃핀 흐릿한 달밤에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와 만나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 되었던 물방앗간을 그리며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장터거리를 지나 이효석 생가쪽에 흥정천이 흐르는데 소설 속에서 동이가 허생원을 업고 건넜던 개울이다. 지금은 개울위에 다리가 놓여 있다. 개울

건너편에 근래 물레방앗간을 세웠는데 허생원이 성씨처녀와 단한번의 사랑을 나눴던 장소다.

지금의 봉평장은 소설 속의 정취를 찾을 수는 없지만, 효석의 고향인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에서 메밀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매년 효석문화제를 열고 있다. 올해에는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산나물은 죄다 모이는 진부장

강원도의 대표적인 고원지대인 평창군에서 5일장이 서는 곳은 5곳(평창, 봉평, 대화, 미탄, 진부)이다. 이 가운데 3, 8일장인 진부장이 상주인구도 많고 고속도로와 가까운 탓에 규모가 가장 크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내노라하는 장시가운데 열손가락 안에 들었던 큰 장이었다. 평창군 사람들은 물론이

축제의 공간

오일장은 축제의 공간이다. 물건을 팔고 사면서 흥이 넘치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로 늘 왁자지껄했다. 또 장터는 부부상들에 의해 먼 곳의 뉴스가 유통되는 정보교환의 장이었다. 심지어 통혼의 역할까지 했다.

영국출신의 지리학자이며 작가인 비숍(Bishop, Isabella Bird ; 1831-1904)은 1894년부터 네치레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여 쓴 여행기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당시 시장의 풍경을 이렇게 썼다.

“장날이 되면 언제나 권태롭고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던 한국의 마을들은 운동 활기와 율기를 띄게 되고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로 아단스럽다. 이른 새벽부터 당국이 정기시장이 서도록 지정된 지점으로 가는 작은 길은 농민들로 메워진다. 이들은 주로 닭, 돼

지, 짐신, 그리고 모자나 나무주걱과 같은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시장에서 팔거나 다른 물품과 교환하기 위해 장으로 가는 것이다.”

장날의 즐거움과 설레임이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 씨오쟁이 짙어지고 따라간다’거나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거름 지고 나선다’, ‘남이 장에 간다니 무릎에 망건 씌운다’고 했을까.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배고 죽는다고 할만큼 씨앗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그 씨앗을 담아두는 씨오쟁이를 짙어지고 나설 만큼 장은 축제의 공간이었다.

장터는 문학 소재로도 자주 등장한다. 조선시대 후기 부부상의 이야기를 그린 김주영의 대하소설 ‘객주’나 한국 단편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장돌뱅이의 삶과 애환을 맛깔스럽게 그려냈다.

려니와 홍천군 내면이나 정선군 북평면 주민들도 진부장을 찾는다.

봄철 진부장에는 주변의 오대산이나 가리왕산, 박지산 등지에서 나온 곰취, 참나물, 나물취, 두릅, 고사리, 고비, 누리대(누루치), 등 도시 주변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산나물들이 지천으로 나온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김치에 한 숟가락씩 떠먹는 올챙이국수가 제맛이다.

금산과 쌍벽을 이루는 인삼장 풍기장

경북 영주시 풍기장(3, 8일)은 철쪽으로 유명한 소백산자락에 있다. 풍기역에서 느린 걸음으로 10분 가량 걸어가면 중앙시장이 나오고 이 일대에서 오일장이 열린다.

풍기 장터에는 따로 만들어진 장옥은 없다. 단지 옛 저자거리 주변에서 오래전부터 그래왔듯이 장날만 되면 이곳에 모여 장을 펼친다. 그래서 더욱 시골장 같다. 비록 소규모이긴 해도 잡화전이라든가 채소전, 건어물전, 철물전 등이 빠짐없이 열린다.

특산물로는 풍기인삼이 대표적이다. 이곳 사람들은 금산의 인삼보다 풍기인삼이 효능도 좋고 값도 싸다고 한다. 이맘때면 '여름 송이'라고 하는 송이버섯도 장에 나온다. 품질은 가을 송이보다는 못해도 향긋한 솔 내음은 마찬가지로. 값은 가을철보다 비쌀 때가 많

다. 가을에는 주변 과수원에서 나온 사과가 지천으로 깔린다.

'고창산 비아그라' 풍천장어와 복분자술 고창장

전북 고창장(3, 8일장)은 읍내를 가로지르는 고창천을 사이에 두고 야채전, 가축전, 어물전, 잡화전, 과일전이 길게 펼쳐진다. 한때 전라북도 서북부 지방의 대표적 장터로 손꼽힐 만큼 규모가 컸다. 고창장에 가면 그 유명한 풍천장어를 만날 수 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고창군 풍천면에서 잡히는 풍천장어는, 이곳에서 나 서해바다를 거쳐 태평양 깊숙한 곳으로 떠난 새끼들이 다 자라 산란기가 되면 다시 찾아온다. 예전에는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지만 요즘엔 매우 귀하다. 그래도 옛 명성은 남아있어 양식 장어가 대신하고 있다. 자연산 풍천장어를 맛보려면 '경찰서장은 하루만에, 군수는 이틀, 국회의원은 일주일일 걸리고 잡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먹는다'는 얘기도 있다. 풍천장어를 더욱 유명하게 만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오일장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5일장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장은 있었다. 삼국사기에 '신라 소지왕 12년(490)에 처음으로 서울에 시장(京市)을 열어 사방의 물화를 통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기적인 장시는 15세기 후반 전라도 무안, 나주 등지의 사람들은 큰 흉년을 당해 보름에 한번씩 읍내거리에서 장을 열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기록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장문(場門)이라 했다.

초창기 보름이나 열흘 간격으로 장이 서다가 17세기 후반이후 오늘날과 같은 5일장이 보편화되었다(3일장, 6일장, 10일장 등이 공존했다).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 의하면 전국의 장시는 모두 1,064개소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장끼리의 연계가 확대됨으로써 경기도 안성 읍내장, 강원도 평창 대화장, 충청도 강경장, 전라도 전주와 남원의 읍내장, 경상도 마산장 등 전국적 유통망을 갖춘 거대한 장시가 발달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경제적 지배를 앞당기고 민족자본이 유통되던 전통장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신식상설시장이 만들어졌다. 동대문의 광장시장은 1904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상설시장 1호이다.

〈출처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청년사), 한국사(한길사)〉

드는 것이 고창 복분자(覆盆子)술이다. 산딸기 열매로 만드는데 색깔이 곱고 맛이 좋다. 술 이름처럼 마시고 소변을 보면 요강이 뒤집혀 진다고 할만큼 정력에 좋다고 한다.

글_ 전명찬 |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정보과장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외국인에게 가장 한국적인 소리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50여 년 전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던 곳에서 연주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리랑은 이제 평화의 노래, 세계의 음악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7월 27일 KBS-TV의 9시 뉴스의 보도 내용 중 아리랑에 대한 앵커의 멘트 중 일부이다. 이 멘트를 시작으로 기자의 아리랑에 대한 보도와 함께 정전협정 화면이 세월의 때가 먼지처럼 쌓인 흑백사진첩을 차례로 들추어 내듯 흑백화면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고 그 짧은 화면 속 어디선가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자의 보도 내용이 이어졌다.

“한국전쟁 당시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던 UN과 북한 측. 이들의 정전협정장에서 동시 연주한 것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외국 참전 군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오래 기억할 만큼 전쟁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대변했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나왔다.

“다른 노래를 가르쳐도 들어오지 않는데 아리랑만 가르치면 그냥 따라 부르고...”

당시 미국 통역병이었고 지금은 고서연구가인 김시한씨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기자의 보도 내용이 계속되었다.

“이례적으로 아리랑이 미7사단의 사단가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아리랑이 도대체 어떤 노래이기에, 아니 아리랑의 선율에 무엇이 담겨있기에 외국인들은 아리랑을 그렇게 쉽게 배우고 쉽게 따라 부르는 것일까?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그 선율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

아리랑은 누구의 노래인가?

아리랑이 여러 지방의 민요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일 것이다. 강원도 정선의 ‘정선아리랑’, 경상남도 밀양의 ‘밀양아리랑’, 전라남도 진도의 ‘진도아리랑’ 등 우리가 흔히 ‘3대 아리랑’이라고 부르는 아리랑 말고도 중국 연변에서 불리는 ‘연변아리랑’, 멀리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이 불러 전해 내려온 아리랑도 전하여지고 있으며 일제에 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광복군 또는 독립군이 되기 위해 가족들과 헤어져 만주로 떠나는 독립군 전사의 결의를 다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광복군(독립군)아리랑도 있다. 만주 광활한 벌판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광복군들은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랠 것이며 조국을 위한 자신의 선택에 용기를 북돋았으리라.

조국을 그리워하며 또는 조국을 떠나 머나먼 남의 땅 남의 나라에 노동자로 살며 맺힌 삶의 고단함과 비애들을

“조선인들은 서정적이며 교훈적이고 서사적이며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리랑은 즉흥곡의 명수인 조선인들에 의해 수 많은 즉흥곡으로 대치되는 노래이다. 그러나 그 후렴은 변치 않고 불려진다.”

실어 부른 슬픈 아리랑 말고도 뗏목꾼이 뗏목을 저으며 부른 아리랑, 광부가 고단한 몸을 잠시 쉬며 부른 아리랑, 산삼을 캐기 위해 험한 산과 바위를 오르내리던 심마니들이 부르던 아리랑, 아낙네들이 김쌈을 때며 부른 아리랑 등 아리랑은 지역과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옷이 입혀져 왔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 이어져 왔다. 어디 그 뿐이랴! 영화로, 연극으로, 문학으로, 춤으로, 관현악으로, 대중음악으로 문화와 예술의 여러 장르를 넘나들면서 우리 민족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아리랑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요이기에 누가 지은 노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민족이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즐겨 불렀고 가장 사랑하는 노래였으며, 누가 아리랑을 어떤 장르에 접목을 시켰든지 간에 가장 그려내고 싶었던 우리의 속마음이었을 것이다. 혼자 불러도 좋고 함께 불러도 좋은.

아리랑, 그 뜻이 무엇이란

아리랑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말이기에 그렇게 민중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아왔을까? 아리랑이 무슨 뜻의 말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여러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고어(古語)에 의한 유추방법, 문헌을 근거로 한 유추방법, 전설이나 민담에 의한 유추방법 등 여러 방법, 온갖 노력을 통해 도대체 ‘아리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고 무

슨 뜻인지를 알아내보려고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정설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아내인 ‘알영’의 덕을 찬미하던 노래가 아리랑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김지연의 ‘알영설’, 전설의 주인공 ‘아랑’을 추모하면서 아낙네들이 부른 노래 ‘아랑가’가 아리랑으로 변했다는 김재수의 ‘아랑설’, 대원군 경복궁을 중수하면서 전국에서 선발된 부역꾼들이 고향을 떠난 외로움과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음을 한탄하면서 ‘나는 님을 이별하네’라고 부른 ‘아이랑(我離朗)’에서 나왔다는 김덕장의 ‘아이랑설’ 역시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하면서 원납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하여 강제로 유통을 시키자 백성들이 “내 귀가 먹어서 원납전 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不聞願我耳聾’에서 뒷부분의 ‘아이롱’이 변해 아리랑이 되었다는 남도산의 ‘아이롱설’, 아리랑을 고유어와 한자어의 혼합된 형태로 보고 ‘아리’는 빛이 찾아온다는 말이며 랑은 고개 령(嶺)이 변해서 된 말이라는 양주동의 ‘아리령설’ 등 40여 가지도 넘는 아리랑의 유래에 대한 설이 있으며,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하 교수는 아리랑의 ‘아리’는 ‘곱다(고운), 상사병이 나도록 사무치게 그림다’라는 어원에 ‘랑’은 삼국시대에 사모하거나 존경하는 인물을 높여 부르는 말로 ‘임’이라는 말이라는 것이다. 또한 ‘쓰리랑’은 ‘마음이 쓰리도록 그리운 님’, ‘아라리’는 가슴앓이 즉, 상사병을 말하는

것이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는 ‘곱고 그리운 임, 곱고 그리운 임 상사병이 나도록 사무치게 그리워라’이며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는 ‘곱고 그리운 임 마음이 쓰리도록 그리운 임 그리워 상사병이 났네’라고 아리랑에 대한 어원과 풀이를 하고 있다. 또한 아리랑을 딱히 어떤 뜻이 있는 말이 아니라 노래의 흥과 장단을 맞추기 위한 후렴구로 봐야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뜻이 어떠한지, 아니면 뜻이 없는 후렴구이든 아리랑은 마음 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의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들 가슴속에 어떤 울림을 만들고 그 울림은 다시 여러 빛깔의 파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리라.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고종의 정치고문역을 하던 H.B헬버트가 1896년 선교잡지 <korea Repository>에 우리 나라 최초로 아리랑 악보를 채보하여 발표하면서 언급한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조선인들은 서정적이며 교훈적이고 서사적이며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리랑은 즉흥곡의 명수인 조선인들에 의해 수많은 즉흥곡으로 대치되는 노래이다. 그러나 그 후렴은 변치 않고 불려진다.”

‘열린 장르’로 울려 퍼지는 아리랑

미국의 유명한 재즈 음악가 ‘오스카 페티포드’는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 위문공연을 마치고 한국공연에 와있던 다른 연예인들과 합류하여 귀국하기 위해 인천에 내려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는 통역병의 안내를 받아 야전화장실에서 일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일을 보는

중에 문 밖에 서있던 통역병이 휘파람으로 부르는 멜로디를 듣게 되었고, 순간 그 멜로디에 큰 감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나와 통역병에게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고 물었고, 그 통역병은 ‘아리랑’이라고 말해주었다. 그가 귀국하여 기억을 되살려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바로 <AH DEE DONG BLUES>이다. 통역병이 ‘아리랑’이라고 한 말을 ‘아디동’으로 듣고 곡명을 그렇게 붙인 것이다. 고전적인 재즈 작품으로 5,60년대 미국의 재즈계에서 많이 연주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한다.

아리랑을 영어 버전으로 부른 가수는 1951년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약 9개월 정도 보병으로 참전했던 영국계 미국 가수 ‘페티 세르게이’이다. 그는 복무를 마치고 귀국해한 레코드사에서 <ARIRANG>이라는 곡을 싱글로 발표했다.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본조아리랑을 만들어진 반주에 의해 부른 것인데 가사 역시 아리랑 3절을 번역한 것이었다.

편곡에 의한 연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던 프랑스 ‘폴 모리아 악단’의 폴 모리아는 1975년 첫 방한 때 아리랑을 접하고 두 번째 방한 때에는 아리랑을 편곡하여 한국인들을 놀라게 했다. 경쾌한 현대 리듬인 8박자와 유럽 스타일의 전통악기를 사용해 만든 폴 모리아 음악 스타일로 편곡된 아리랑이었다. 1976년 음반으로 발매되어 세계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켰다.

1976년 북한의 최성환이 작곡한 <관현악곡아리랑>은 2000년 6.15 남북한 정상회담의 공식 의전음악으로 연주되어 우리에게 알려진 이 곡은 일본이나 미국, 동구권 쪽

小畏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의 나라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곡이었다.

(사)한민족아리랑연합회의 김연갑 이사가 쓴 <아리랑의 세계화, 그 실상과 전망>이라는 기고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우리만의 노래 아리랑이 한반도를 벗어나 외국에 널리 알려지게 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기고문에서 그는 “이제는 아리랑의 상징 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리랑의 장르적 다양성과 음악적 다양성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리랑은 이미 세계인들이 널리 아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의 민요이다. 그렇지만 노래에서 열린 장르로 나아갈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영화, 연극, 춤, 문학 등 이미 여러 장르에 걸쳐 시도된 바 있는 아리랑의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은 바로 열린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아리랑의 울림을 더욱 크고 넓게 퍼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크거나 작게 지금까지 계속 돼오고 있으며 여러 행사를 통해, 공연을 통해, 민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뿐 아니라 세계에 관심의 씨를 뿌리고 있다. 나아가 단지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게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강한 파동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아리랑은 누구나 한번 들으면 빠져드는 묘한 매력이 있고 깊은 호소력이 있는 아름다운 울림이기 때문이다.

아리랑, 영원한 한민족의 울림

<물은 답을 알고 있다>란 책의 저자로 국내에 잘 알려진

파동연구가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의 결정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사진집으로 내기도 하였는데 그 사진집에는 물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생기는 물의 결정 모습도 있었다. 신기하게도 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그 음악의 파동이 물에게 영향을 미쳐 음악에 따라 다른 모습의 결정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G선상의 아리아나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G단조 같은 고전음악과 함께 ‘아리랑’을 들려주고 난 다음 생기는 물의 결정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한(恨)’이라는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정이 가장 잘 표현된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떠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애절한 마음이 잘 표현된 노래 아리랑을 물에게 들려주니 가슴 저미는 애절함을 물도 느꼈는지 애절한 듯한 느낌을 전해주는 결정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리랑에 대한 실험 결과의 내용을 적고 있다.

물의 결정사진이 과학적으로 꼭 신뢰할만하다고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리랑은 분명히 어떤 파동을 갖고 있었으며 그 파동은 바로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온 우리 민족 고유의 울림이며 메아리가 아닐까. 우리 민족의 상징이며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우리 삶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언제나 쉽게 함께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움 같은...

취재 _ 지호진 기자



회의도 경쟁력이다

vol_7

표결 진행순서

표결 선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타 봉한다. 이때부터 모든 발언권은 정지 되고 투표행위가 시작된다.

표결방법 · 출석의결권수 공표

의장은 앞에서 제시한 표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표결 선포전에 회원이 동의하고 다수가 재청한 이의없는 투표방법으로 표결을 하겠다는 것을 공표하고 출석의결권수 확정방법 역시 택일하여 공표한다.

이 부분을 누락했을 경우 회원들이 투표 전후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출석의결권수 확정방법은 회의장 내에 있으면서 투표하지 않은 회원들의 의결권 문제나 출석수에 잡혀 있

지만 회의장 내에 없는 회원들의 의결권이 의안의 통과여부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필수적인 절차이다.

감표위원(監票委員) 지명 및 추천

감표위원은 의장이 지명하는 몇 명과 회원 중에서 몇 명을 추천하게 하여 표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중의 하나이다. 국회에서는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사전에 여야가 합의하여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집행부측 인사로만 감표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공정성에 시비를 남기게 되므로 사전에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회원들 특히 상대가 있으면 상대측 회원의 추천으로

감표위원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 수는 보통 2~4명이 좋다.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직원들이 투표용지의 분류, 투표수의 점검, 계산을 하게 한다. 감표위원은 그 과정에서 매한 표가 나오면 이를 합의하여 유효·무효 여부를 판정할 수도 있고 찬·반표가 정확히 분류되고 계산되었는지도 확인한다.

표결방법 안내

우선 진행자와 안내요원들은 곧 투표를 실시될 것이므로 회의장 밖에 있는 회원들을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도록 안내방송을 하여 의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한다.

투표용지를 입장시에 나누어 주었다면

어떤 용지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즉석에서 참석확인증과 대조하면서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하는데 본인인면서 위임받은 회원은 2장의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기표요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유·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알린다.

투표 개시

의장의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언에 따라 투표가 개시된다.

국회의 경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국장의 투표방법 설명후 의원의 성명을 호명하면 해당의원이 바로 투표를 개시하게 된다.

간혹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

의적으로 방해하여 의장에게 퇴장명령을 받은 회원의 경우도 그 의결권까지 퇴장된 것은 아니므로 의장은 퇴장한 회원의 의결권은 위임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한다.

또 투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개표시간을 정회하는 회의체가 간혹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투·개표시간도 회의의 연속이므로 의장은 단상을 지켜야 하고 간혹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필요하면 단상에서 발언하면서 투·개표를 지휘하여야 한다.

회원들의 기표

기표소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다른 회원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기표한다. 의결권 제척사유



가 있는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투표함 투입

일반적으로 투표함은 단상 근처에 놓고 회원들이 차례로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총회와 같이 다수가 모인 회의장에서는 회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투표함을 들고 이동하는 방식이 총회장의 질서유지에 편리하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점검하여 사전투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투표 종료여부의 확인

의장은 회원들이 빠짐없이 투표하였는지, 투표를 못한 회원이 없는지, 감표



위원도 투표하였는지를 반복하여 물어 본다.

투표 마감 선포

“그러면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석의결권수를 투표에 참가한 수를 가지고 확정하기로 하였다면 투표 마감을 선포하면 바로 투표함이 폐쇄되므로 이후의 출석회원은 해당 안건 투표에 참가할 수 없고 총출석의결권수가 이로써 확정된다. 표결선포시간 현재로 출석의결권수를 확정된 경우도 같다.

개표

의장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열어 개표대에 투표용지를 쏟고 우선 찬성과 반대를 분류한다. 의사표시가 애매한 표는 따로 분리하여 감표위원들에게 넘긴다. 감표위원들은 이 애매한 표를 판정하여 투표용지에 유·무효 표시를 하고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개표요원들에게 넘긴다.

계표

감표위원들의 입회하에 표결집계표에 찬성 몇 매에 몇 표, 몇 %, 반대 몇 매에 몇 표, 몇 %, 기권 및 무효 몇 매에 몇 표, 몇 %, 총투표수 몇 표, 총출석의결권수 몇 표를 기재하고 감표위원들이 확인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를 의장의 진행안에 기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회의장 내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회원의 의결권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국회의 경우 “투표로 표결하거나 선거할 때에는 반드시 의원이 기표한 투표수에 의하여 표결결과가 결정되므로 회의장내에 있는 의원이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재석수(在席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익유무 또는 기립표결의 방법으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표결 당시 회의장내에 있는 의원은 모두 재석수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어 투표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재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감표위원이나 계표 종사자는

표결선포시에 의장이 채택한 총출석의결권수 확정방식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집계결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정식 표결결과는 우선 안건의 제목을 말하고 총출석의결권수 몇 표중 찬성/반대/기권/무효수를 발표하고 찬성의결권수가 정관 몇 조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에 달/미달하였으므로 가결/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명확히 발표한다.

찬성수/반대 및 기권수를 묻는 표결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표결선포시간 현재의 출석의결권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찬성수만을 묻는 표결의 결과발표는 총출석의결권수 몇 표중 찬성수만을 발표하고 찬성의결권수가 정관 몇 조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에 달/미달하였으므로 가결/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반대 및 기권수를 묻는 표결의 결과발표는 반대 및 기권이 의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총출석의결권수 몇 표중 반대 및 기권 의결권수가 몇 표로써 원안 통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하거나 “총출석 의결권수 몇 표중 반대 및 기권 의결권수가 몇 표이고 찬성 의결권수가 몇 표로써 찬성 의결권수가 정관 몇 조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에 달/미달하였으므로 가결/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한다.

감표위원들은 의장의 표결결과 발표가 표결집계표의 내용과 이상이 없으면 표결집계표와 투표용지를 대봉투에 넣고 봉인한다.

표결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 의장의 의사진행상의 여유를 확보하고 의결권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결에 참가한 숫자를 총출석의결권수로 확정하는 방법이 좋고, 전술한 기타의 표결 방법을 사용할 경우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처에서 출석 및 퇴장 회원

의 출결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다시 표결

부결된 안건이 수정안이었다면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친다. 그러나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다.

의장은 의장석에서 선포

국회법은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역대 국회에서 의장석이 아닌 기타의 장소에서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비민주적인 의사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3월 7일자로 개정된 부분이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상 표결에 대해 적어 보았다. 문화원의 총회는 문화인들의 잔치날로써 그 동안의 모든 문제점들이나 갈등을 총회로써 해소시키고 회원들이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어야 한다. 표결도 필요



하다면 하는 것이 좋겠지만 총회 당일 해결하기보다 그 사전 단계에서 조정하고 타협해서 정리정돈을 마치고 총회에 임하는 문화원이 최고의 문화원이 아니겠는가?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팡팡팡” 이런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편은 ‘의정’



자문 _ 김점동 | 동우에스센스 대표

전국문화원연합회,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 구축방안 마련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체계적인 지역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의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문화정보 서비스 현황 분석,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의 구축·운영방안 및 향후 발전 방안과 기대 효과를 주어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그에 걸맞는 지역문화정보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

하는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는 지역문화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허브포털로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 관광명소, 문화예술 활동 및 생활·생업·종교·관광 문화를 포괄하는 역사문화 정보를 담아낼 예정이다.

이는 지역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대국민 지역문화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문화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등 정보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문화대동여지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작기간을 갖고 오는 2008년부터 활성화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지도의 제작에는 이흥재(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주강현(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이원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정책팀장)·하만기(당 연합회 사무총장)씨 등 8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특성화 문화발굴·육성을 위한 대토론회

전주관광호텔 7월 9일 개최... 향토문화 진흥방안 논의

지역특성화 문화발굴·육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7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 전주관광호텔 2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전국 순회토론회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에 바탕을 둔 지역 특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향토문화의 진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과 조남식 부회장, 정연구 부산시지회장, 오용갑 전남지회장, 표대수 거창문화원장을 비롯해서 전북 관내의 지방문화원장과 사무국장 등 300여명의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지회 이복웅 지회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3호 이리향제물풍류연주로 막이 오른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사회를 맡은 이복웅 지회장은 참가한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면서 남다른 향토애로 향토사를 이끌어 왔던 대가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어 오늘의 토론회가 전북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인사를 곁들였다.

제1주제의 발제자인 고창문화원 이기화 원장은 '특성 있는 지역 문화의 실제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창문화원의 연구실적과 고창군의 환경을 예로 들었다.

이 원장이 평생을 고창문화의 전승과 보존에 힘써 왔음을 상기하면서 고창군이 동학 농민혁명의 1차 봉기지라는 점과 전봉준 장군의 태생지임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고창문화의 특성 있는 지역문화사업으로 의향(義鄕), 인맥의 고장, 판소리의 성지, 고인돌을 비롯한 거석문화 유적지, 민속의 보고, 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리, 문화예술사의 정립 등을 들었다.

이어서 1주제 토론자로 나선 전북도민일보 이상윤 논설위원과 무주문화원 김경석 원장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고창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상품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의했다.

군산대 식품영양학과 주종재 교수는 제2주제로 '전라북도 음식문화의 산업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주지역에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향토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중적 호응도가 높은 음식에 대해 상품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음식의 현대화와 편의식품화, 조리법의 표준화, 관광상품화, 향토음식점 단지 조성을 비롯한 학교급식 보급 등 많은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전 군산대 사학과 천형균 교수와 순창문화원 설동찬 원장은 2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전주지방의 음식문화가 장구한 시일에 걸쳐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어져 왔기에 대한 것과 좀더 고급화된 한정식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익산문화원 김복현 원장은 제3주제로 '백제문화권에 있어서 익산의 위치'를 발표하면서 익산의 역사 문화적 위치는 공주 부여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익산으로의 천도를 추진한 무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와의 국제결혼을 위시해서 무왕의 발원에 의해 건립된 대관사는 궁내사찰로 도성내에 경영되는 사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국가 사원을 익산지역에서 경영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심을 쇄신하고 새로운 발전적 기

반을 마련하려고 익산지방으로 계획한 천도의 의미는 불교국가의 건설이며 이 시기에 익산을 중심으로 발전한 문화는 불교문화가 중심이라고 진단하였다. 앞으로 지역 특성화 문화발굴을 위한 육성에 전념해 간다면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토론에서 호원대 외래교수인 **채수환** 교수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무왕에 의해 미륵사를 익산지역에 창건 운영하게 되면서 백제 귀족문화의 발전방향을 기층사회의 문화와 연결시켜 전통적 성격의 자기전개를 기하려 하였던 하나의 문화운동이라는 사실임을 강조했다.

남원문화원 **노상준** 원장은 일본의 최대 관광지인 오사카, 나라, 교토, 아스카, 후쿠오카 등지에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우리 역사의 현장임을 예로 들면서 일본 관광을 통해 백제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일본 속에 백제문화와 미륵불교를 정도 익산지역의 백제문화와 연계하는 특화사업을 전개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문화원이 앞장 서도록 적극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4주제인 '전라북도 민속자료 조사와 보존 방안'의 발제자인 원광대 국어교육과 **박순호** 교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과 모든 의식이 집약되어 있는 민속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화 채록과 구연대회, 민요 경창대회, 세습무의 무가 채록의 필요성, 지킴이의 부활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민속축제나 대회가 실속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나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북중앙신문 문화부 **김영애** 차장은 민속자료의 보존방안은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 것이어서 지자체나 관련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숫대'와 '짐대'를 혼용하고 있는데 '숫대'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원형을 찾아 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인지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부안문화원 **김원철** 원장은 주제발표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귀중한 자료를 조사 발굴해 놓고 보존이 소홀한 내용에 대하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전북 지역의 사료집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채 장관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 취임

7월 1일자로 문화관광부 장관에 정동채 의원(광주 서구·3선)이 취임하였다. 신입 장관은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합동통신 기자와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거쳐 아태재단 김대중이사장 비서실장, 국민회의총재비서실장, 제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후보 비서실장, 열린우리당 홍보위원장·윤리위원장 및 제17대 총선 비례대

표선정위원으로 활약했다.

1998년 제1회 청소년보호대상(특별공로부문) 수상에 이어 2002년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남녀평등정치인상을 수상하였으며 저서로는 '열린가슴끼리 정다운 만남' '정동채 사랑방 이야기' 등이 있다.



배종신 차관

문화관광부 배종신 차관 취임

7월 7일자로 문화관광부 차관에 배종신 차관보가 취임하였다. 신입 배 차관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문교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이래 체육부와 문화체육부의 행정관리담당관, 국제경기과장, 생활체육과장, 체육기획과장, 협력

총괄과장을 거쳐 문화관광부 체육국장과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기획조정국장을 비롯해서 한국종합예술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직업 관료로 일해 왔다.

권용태 회장, 국회 문화관광위 이미경 위원장·우상호 간사위원과 오찬

7월 21일 여의도 '다원'에서 권용태 회장은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장과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이미경 위원장(열린우리당, 서울 은평)과 우상호 간사위원(열린우리당, 서울 서대문)을 초청하여 오찬모임을 가졌다.

이 날 모임에는 인천시지회장인 허문명 원장(부평), 나영수 원장(은평/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이선재 원장(마포), 김환옥

원장(서대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이미경 위원장과 우상호 간사위원에게 각각 선임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 일행은 지방문화 분권과 향토문화 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 위원장과 우 간사위원도 지역 문화 발전에 따른 문화컨텐츠 개발 등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문화원장 출신 심재덕 의원 당선축하 모임



7월 12일(월) 11시 30분 여의도 맨하탄 호텔 2층 중국식당에서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 수원시 장안구)의 당선 축하모임이 있었다. 이날 오찬 모임에는 수원문화원장과 당 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민선 1·2기 수원시장을 지낸 바 있는 심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권용태 회장, 이영철·조남식 부회장을 비롯해서 경기도지회 남선우 부회장, 장수봉 운영위원

장, 유병헌 수원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 축하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문화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심 의원이 앞장 서 줄 것을 부탁했으며 심 의원도 문화원의 한 가족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권용태 회장, 정병국 의원실 방문



권용태 회장은 가평문화원 신일균 원장·양평문화원 김유택 원장과 함께 7월 19일(월) 10시 국회 의원회관 정병국 의원실을 방문했다.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가평·양평/2선)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지방문화원

육성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달라는 일행의 주문에 흔쾌히 승낙하면서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만희 상주문화원장 국무총리 표창



평소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 활동을 장려해 오고 있는 상주문화원 이만희 원장이 지난 7월 9일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고경재 양양문화원장 강원도문화상 수상



6월 25일부터 3주간 서울 동작문화원 4층 전시실에서 양양문화원의 '세계선사유적 탐방 특별사진전'이 열렸다. 고경재 원장이 사진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권용태 회장과 김우중 동작구청장, 연만희 동작문화원장이 관람하고 있다.

제46회 강원도문화상 수상자(향토문화 연구부문)로 양양문화원 고경재 원장이 선정됐다. 고 원장은 지난 7월 8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강원도문화상을 수상했다. 고 원장은 1970년 이후 양양지역 향토문화 발굴에 기여하고 오산리 선사유적을 학술연구의 대상으로 부각시킨 점 등 지역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함평문화원장 이현석 씨 추대



함평문화원은 3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소설가이면서 향토 사학자인 이현석 씨(李炫石 67)를 만장일치로 신임 원장에 추대하였다.

이 원장은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장과 함평군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향토사료집을 발간하여 서울신문사 주관 향토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양평문화원장 김유택 씨 선임



양평문화원은 5월 7일 임시총회에서 원장경선을 통해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유택(金裕澤 73) 씨를 제7대 원장으로 선임하고 5월 25일 11시 양평여성회관 4층 다목적홀에서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 원장은 양평군 농협과 축협을 거쳐 농협조합장과 양평새마을금고 이사장(2기)을 역임하였다. 10여 년전부터 양평문화원 이사과 부원장으로 문화원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1995년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영암문화원장 신태균 씨 선임



영암문화원은 6월 4일 임시총회에서 두 분의 원장임 후보자를 놓고 경선에 들어 갔으나 한 분의 양보로 신태균 씨(申泰均 63)가 무투표로 신임 원장에 선임되었다. 7월 5일 영암군민회관에서 당 연합회 감사로 있는 김희규 원장과 이취임식을 가진 바 있는 신 원장은 영암군 사회복지

전국 문화원 새로운 얼굴

과장과 내무과장을 거쳐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한 행정통으로서 그동안 영암문화원 이사로 참여해 왔다.

대구 동구팔공문화원장 장주호 씨 취임



동구팔공문화원은 4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원장에 장주호(蔣周孝 61) 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6월 4일 문화원 앞 광장에서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장 원장은 1942년 생으로서 경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계명대 및 대구대 대학원에서 사회교육과 개발행정 등을 전공하였으며 대구일보 기자를 거쳐 대구은행 지점장 등을 역임하는 한편 현재는 대구대학 법인 영광학원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경주문화원장 최용환 씨 선임



경주문화원은 4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신임 원장 경선을 실시한 결과 3명의 입후보자 중 결선투표로 최용환 씨(崔龍煥 72) 씨를 선임하고 6월 5일 오후 2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이·취임식을 가졌다. 최 원장은 경주시 요식업조합장과 직장새마을운동 경주시협의회회장을 비롯하여 새마을운동 경주시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주 남산보호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역사 유적 보호에 헌신하고 있다.

하남문화원장 양인석 씨 선출



하남문화원은 6월 28일 문화원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경선을 통해 제4대 원장으로 양인석 씨(梁麟錫 69)를 선출하고 7월 30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내외 귀빈과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양 원장은 명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등을 수료하였으며 경력으로는 초·중등학교 교사를 거쳐 신용협동조합과 성광학교 이사장을 역임하고 최근에는 하남문화원 부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금정문화원장 최종섭 씨 재추대



금정문화원은 5월 14일 문화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종섭(崔宗燮 66) 현 원장을 만장일치로 제2대 원장에 추대했다. 재 추대된 최 원장은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과 한국자유시인협회·한국시조시인협회 부회장 및 한중작가협회 회장 등 문학단체와 환경문화연합 총재직을 맡고 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체험 프로그램지원 사업' 실시

정부는 통합복권기금으로 지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지방문화원 등에 지원하여 '문화체험 프로그램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기간은 2004년 8월부터 12월 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농어촌, 도서지방 등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비롯해서 영세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사회보육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단계는 전국 220개 지방문화원에 각 700만원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토록 하고 2단계는 50개 정도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단계는 시·도지회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6월부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준비를 위해 부설 문화동력 연구소 연구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체험프로그램준비위원회를 열고 기금 사용 및 문화체험의 범위와 체험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각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마련해 왔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이 사업을 통하여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확대 및 주5일 근무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도모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문화원 개원 50주년 기념

한국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1954년 7월 10일 천안에 문화의 씨앗을 뿌린지 꼭 50년이 되는 2004년 7월 10일 오전 10시 천안문화원 4층 대강당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과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성무용 천안시장, 이정원 천안시의회 의장 등 내외 귀빈과 문화가족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민병달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생산적 소비자로서 문화예술 창조 체험에 많은 참여

를 권장하면서 천안문화원이 지난 반세기를 한결같이 해 온것처럼 새로운 천안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매진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행사에 앞서 7월 9일 오후 7시부터 충남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과 천안시립합창단의 가곡과 아리아의 향연 등 전야제가 펼쳐졌으며 행사 당일 기념식을 전후해서 개원50주년 기념비 제막과 '사진으로 보는 천안문화원 50년' '화미회 10인전' 등의 전시회도 성황리에 가졌다.



남상만 서울 중구문화원장 한국음식업중앙회장에 선임



프린스호텔과 대림정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남상만 서울 중구문화원장이 8월 12일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 보선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71%의 득표로 회장에 선임됐다.

개 원

인천 남동문화원

인천광역시 남동문화원(원장 이정박)이 2004년 8월 2일자로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8월 20일 오후 5시 인천시 남동구 부월동 소재 남동문화원에서 헌판식을 갖는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부근 중앙공원에서 기념식과 축하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월동 1453-2 (봉천빌딩)
전화 : (032) 413-1717
팩스 : (032) 413-1718

주소 이전

오산문화원

우(447-010)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강변로 365
오산문화예술회관 2층
전화 : (031) 375-7755
전송 : (031) 375-7959

울산 북구문화원

우(683-410)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820
전화 : (052) 282-6024
전송 : (052) 282-6025

■ 문화산책

문화원 PR,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문화원이 지역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포지셔닝하기 원한다면 PR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 이제 PR은 문화원에게 필수과목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문화환경이 더욱 고도의 PR전략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원 나름대로 PR에 대한 훈련을 받고 전략을 세울 때다. 지금 기업체에서는 PR을 매우 강조하는 추세로 일부는 내부에서 해결하고 일부는 PR홍보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역할 배분이 말해주듯 PR은 쉽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경영활동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게 PR이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게 PR이다.

글 _ 강민철 우리문화 기획팀장

몇해전까지만 해도 지방문화원은 '무명배우'였다. 멀리 출장길에 올라 시군을 찾았을 때 'OO문화원이 어디냐?'고 물으면 고개를 가우뚱 거릴 뿐이었다. 게다가 동네 셋길까지 안다는 택시기사 말만 믿고 갔다가 낭패볼 뻔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목적지에 당도했을 때 택시기사가 말한다. "여기 맞지예". 그러나 뭔가 이상하다. 아 뽀새! 문예회관이다.

그런데 21세기 문턱을 넘고 부터 문화원은 무명 딱지를 떼기 시작했다. '문화의 세기' '웰빙' '주5일제 근무'와 같은 키워드들이 문화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들이다.

특히나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을 비롯해 신입원장 선출들이 줄을 이은 데다 국가 정책 면에서도 지방문화를 균형 발전시킨다는 논의들이 전국에 걸쳐 이뤄져 지방문화원은 더이상 숨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문화원은 회원, 지자체, 언론, 유사문화기관, 대학, 문화관광부, 해외관광객등 여러 사회 구성요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원이 어떠한 곳인가는 이들 구성원들의 머리속에 일정한 틀로 개념이 지어져 있다.

하지만 개중에는 문화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적잖다. 문화원에

대해 '제2의 경로당'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60년대 초창기의 문화원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팩트(FACT) 자체가 틀린 '오보'이지만 수정이 더디게 진행되어 모처럼 좋은 사업을 펼치려 할 때 이같은 인식이 악성 바이러스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문화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PR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얘기다. 더욱이 문화원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PR(Public Relation)에 힘써야 한다. PR이라고 하면 신문지상에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해 돈을 주는 PR비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다.

문화원 둘러싼 대상들과 전략적 메시지 교류해야

PR은 글자 그대로 공공관계이다. 특히, 문화원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PR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PR에 대해 신경을 쓰는 곳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PR을 문화원 중심으로 크게 둘로 쪼개면 문화원 안과 문화원 밖이다. 문화원 안은 뉴스·행사·책자등을 제공하는 정보의 발신자이고 문화원 밖은 뉴스·행사·책자등을 제공받는 정보의 수용자다. 문화원은 회원과 지자체, 언론, 유관단체,



지방대학, 정부등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적인 예가 회원관리, 지자체 관계, 언론관계, 정부관계다. 어떻게 보면 문화원이 지금까지 얘기해오던 모든 것들이 PR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저런 관계를 PR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PR은 메시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중요한 개인이나 조직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일정한 목적을 갖고 일정한 전략을 세우고 일정한 방법을 구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PR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모든 개인과 관계를 대상에 맞는 목적과 전략, 방법에 근거해 일정한 메시지로 꿰어 나갈 때야만이 PR이라 할 수 있다. PR을 잘 한다 못한다는 것은 이들 복합적인 관계속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충북 충주도 원래는 사과로 유명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술축제로 유명해졌다. PR의 힘이 컸다. 이같은 PR의 수단으로는 언론홍보, 팸투어, 홍보이벤트, 여행사설명회, 해외언론 초청행사등이 있다.

그리고 축제나 문화행사 그자체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PR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가하면 내부 고객 관리, 회원 만족도 조사, 문화예산 및 기부금 조성, 지역특성화 사업 컨설팅, 문화원 장기 비전 구축 등도 PR의 한 축을 이룬다.

충주도 사과의 고장에서

무술의 고장으로 변화

예를 들어 도봉산 뺨꾸기 축제를 연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PR이지만 도봉산 뺨꾸기 축제 그 자체를 만드는 것도 PR이다. 그러나 아주 복합적인 전략이지만 소비자에게 다가갈 땐 아주 심플해야 한다. 도봉산에 뺨꾸기가 울어 어린이 등산객이 많아졌다는 소스를 개발해 9시 뉴스에 내보낸다고 하자. 이는 단순히 뺨꾸기가 살고 있다는 자연생태적인 내용을 알리는 PR이 아니다. 어른 등산객만 바글바글한 도봉산에 산새와 가족이미지를 부각해 주변 식당 주인이 환하게 웃고 도봉구를 친

환경 고장으로 각인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1개 시군에 1개 문화원 꼴로 형성된 문화원은 22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문화원들은 어떻게 PR하고 있는가? 문화원 자체의 특징점을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가?

회원들의 불만에 신속히 대응해 만족으로 대전환하는데 성공하고 있는가? 한쪽에 치우친 지자체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전국에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중앙 언론의 성격에 맞는 보도자료를 몇 종이나 작성하고 있는가? 중앙부처와 기업체, 타지역과 얼마나 '유관한 관계'를 만들고 있는가?

문화원 환경도 '경쟁구도'

커뮤니케이션 역점 돌때

그리고 문화원의 가장 중요시 해야할 관계는 바로 직원이다. 가장 중요한 PR은 내부 PR이다. 자기 회사의 자동차 제품을 사지 말라고 친구에게 말하는 사원이 있다면 그 자동차 회사는 볼썽 다 본 회사임에 틀림없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내부 PR에 매우 힘쓰는 모습이다. 수천 수억을 들여 광고를 때리는 것 못지않게 마우스 투 마우스(mouse to mouse)마케팅에 힘쓴다. 한 여직원이 감동하면 그 제품은 금세 그녀의 입에서 가족으로, 가족의 입에서 동네 목욕탕으로, 동네 목욕탕에서 외국으로

회오리 처럼 전달되기 때문이다. 문화원 소속 직원들 역시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그 조직이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만만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문화원의 CEO (최고경영자) 역시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불만요소를 해결함으로써 문화원에 일당백의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 이같은 환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전문가가 온다고 해도 실력을 발휘하기 만무하다.

이제 문화환경도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문화원이 지역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포지셔닝하기 원한다면 PR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

이제 PR은 문화원에게 필수과목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문화환경이 더욱 고도의 PR전략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원 나름대로 PR에 대한 훈련을 받고 전략을 세울 때다.

지금 기업체에서는 PR을 매우 강조하는 추세로 일부는 내부에서 해결하고 일부는 PR홍보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역할 배분이 말해주듯 PR은 쉽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경영활동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게 PR이다. 그러나 해야하는 게 PR이다.





포토뉴스

▲ 갈수록 문화·레저·건강에 대한 웰빙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광진문화원 문화강좌의 한 장면

21세기 대들보 양성하는 목포문화원 '양현재'

목포지역의 어린 새싹들에게 사회 윤리적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켜 바른심성과 맑은 기상을 지니고 다가오는 21세기 주역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개설된 교육과정인 목포문화원의 양현재이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뜻인 양현재는 고려 말 유학자 안향(1243~1306)이 당시로서는 신문학인 성리학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양현고'라는 장학기금을 조성한데서 유래한 것. 이러한 안향의 교육취지는 후일에 커다란 결실을 맺어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조선조 518년의 이념적 통치기반인 예와 악을 융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양현재는 엄격한 전통유교식 교육방법을 채택하여 올바른 가치판단을 갖게 하는 '수기지학'과 '치인지학'의 도를 터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다.

교육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포대학교에 재직 중인 동양철학박사 김승현 교수의 직강지도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내용은 '소학'을 근간으로 하고 전통적 생활예절을 중심으로 서당식 한문교육을 병행 실시해오고 있는데 학습과정에 부수되는 역사와 철학의 문제까지도 포함해 지도



하면서 엄격한 출석관리, 수업태도, 배운 바를 실천에 옮겼는지 등을 확인 점검 지도함으로써 전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는 국내외의 권위 있는 유학자를 초빙 특별교양강좌를 개최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참여케 하고 있고,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 성균관견학수련회, 야외백일장 등을 연례행사로 실시해 오고 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더욱 학업에 정진해 줄 것을 권고하는 뜻을 담아 면학장

을 수여 격려하며 모범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성균관장의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한다.

이 지역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양현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시내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학생들중 예과반을 선발하여 전통윤리의 기초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예과과정을 성실히 마친 학생들만이 본과로 진학 할 수 있다.

양현재는 목표문화원의 명물로서 이 지역민들에게 현대교육의 부족한 영역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훌훌~~ 국립극장 '토요문화광장'

국립극장이 발레, 오케스트라, 콘서트, 뮤지컬, 한국무용 등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전 분야에 걸쳐 최고의 공연단체 및 예술가들을 초청해 마련하는 '토요문화광장'은 기침 소리 하나 조심스러운 실내 공연장이 아니라 남산의 신록을 배경으로 하는 탁 트인 야외에서 정말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국립극장의 대표적인 야외 무료공연. 1993년 첫 선을 보여 10년을 한결같이 토

요일의 문화친구로 많은 이들과 우정을 쌓아 왔다. 이제 깔끔한 새 옷으로 단장한 문화광장에서 8월과 9월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환호와 박수의 무대에 당신을 초대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국립극장 문화광장
문의 : 02, 2280, 4114~6 (국립극장)

개원 6년만에 전국 220개 문화원의 선두주자로 부상



서울시 동작구 동작문화원으로 들어서자 20대 젊은이들이 대기실에서 삼삼 오오 모여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독서실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그 만큼 동작문화원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호흡을 함께하는 문화원이다.

‘문화대학’ 폭발적인 인기

지난 98년 12월 창립된 역사는 짧은 문화원이지만 동작문화원의 내공은 무척 깊은 편이다. 문화원 창립의 산파역을 맡아서 초대원장으로 추대된 연만희 원장의 탁월한 경영능력에 김우중 동작구청장의 적극적인 지원, 이윤선 사무국장 및 장은주 부장 등 실무진의 전문적인 능력과 활동력으로 동작문화원은 전국 220개 문화원중에 주목받는 문화원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동작문화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문화대학’을 꼽을 수 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현재 31개 강좌 10,924명의 수강생을 두고 있고 2003년도가 32개 강좌 16,855명, 2002년도가 31개 강좌 13,091명의 수강생이 등록을 했었으니 어느 문화원 프로그램 보다 많은 수강생을 자랑한다.

‘문화대학’ 프로그램 중 차밍디스코, 한국무용, 건전가요, 댄스스포츠, 생활영어 강좌 등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특히 컴퓨터 강좌의 인기가 높다. 컴퓨터 강좌는 현재 초급 5개반, 중급 3개반 각반 40명으로 총 8개반 360명의 수강생이 등록해 강의를 받고 있다. 수강생들은 4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인터넷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강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교육이 현재와 같이 자리를 잡게 된 배경에는 동작문화원 명예원장인 김우중 구청장의 공로가 크다. 김구청장은 당시 컴퓨터 교육의 취지는 좋으나 시설과 기기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주) 한국통신을 방문 30대의 컴퓨터를 기증 받아 하드웨어가 구축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원이 자체 구입한 11대의 컴퓨터와 동작구청의 인터넷 시설 등을



지원 받아서 컴퓨터 교실을 개설하게 됐다. 이런 토대위에서 시작된 컴퓨터 교실은 2000년 3월 동작구청의 지원으로 사당분원에 컴퓨터 22대 규모의 동작문화원 제2의 사당컴퓨터 교실을 개설함으로써 규모와 내용이 더욱 발전하게 됐다.

김우중 구청장의 '문화원 사랑'

이러한 컴퓨터를 계기로 한 동작문화원의 '문화대학' 활성화를 비롯한 구민들의 참여 유도는 김우중 구청장의 뒷받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구청장은 평소 문화원을 자주 방문해 문화원 실무자들의 애로를 듣고 이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원 주최의 구민 행사에도 꼭 참석해서 구민

들과 격의 없이 함께 어울리고 있다. 김우중 구청장의 '문화대학'에 대한 애정은 지극하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 한 토막. 한번은 김구청장이 한문 강좌에 들렀다가 네 살 가량 된 딸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를 보고는 그녀가 공부에 지장을 받을까 염려해 직접 그 딸의 손을 잡고 2층 보건소 어린이 놀이방까지 데려다 주고 간호사에게 '잘 보살펴 달라' 라는 당부의 말까지 남겼다. 그의 지극한 문화원 '문화대학'의 애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동작문화원은 산하에 독서실 3곳과 어린이 집 7곳을 운영하고 있다. 위탁 독서실의 경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

하고 있으며 위탁 어린이 집은 유아들에게 적절한 환경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유아들의 성장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어린이 집의 프로그램도 완전 보육체계를 확립하고 유아들에게 신체, 사회성, 정서, 지적능력, 언어 등 고른 발달과 풍부한 창의력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독서실과 어린이 집은 동작구민들의 전폭적인 인기와 지지를 얻어서 동작문화원의 홍보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동작문화원의 대내외적인 활동과 내실을 갖춘 프로그램들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해 전국 220개 문화원 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 후발주자 입에도 불구 하고 문화 기반 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상을 받기도 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시민의 생활문화 욕구가 커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문화서비스가 절실했기 때문에 문화원의 도시형 모델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동작문화원이 그러한 체계에 가장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작문화원은 도시문화원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역문화육성 및 창달 △전통문화계승 및 창조적 보급 △지역주민의 정보화진작 △주부

의 여가 및 부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도시 생활인을 위한 문화활동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주변 대학 및 연구 기관과 연계 △지자체 지원 네트워크 형성보다 근본이 되는 것은 문화원+구청+주민의 3위일체와 사무국+지도교수+회원의 3위 일체가 되어 발전하는 인프라를 구성해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조직·시설·운영에서 탁월

한편 동작문화원은 민족의 얼과 지혜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는 미래 창조 의 원천이고 국가와 지자체의 정체성이라는 인식 아래 향토사 연구, 간행,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매년 마다 동작구의 향토사와 관련해서 저서를

발간하고 동작문화 유산이야기, 동작 역사문화, 동작문화유산 등 향토사를 편찬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동작구는 충절의 정기와 도의의 정신이 가득한 고장이다. 양녕대군의 지덕사, 절의의 표상인 사육신묘, 효행의 상징인 효사정, 순국선열을 모신 국립현충원 등 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다. 또한 20회 이상 전국의 문화유산을 순례하는 역사 문화탐방 행사도 크게 환영받고 있다.

늦깎이로 시작해 어느 새 전국 220개 문화원의 선두주자로 부상한 ‘동작문화원’. 조직·시설·운영 모든 면에서 손색없는 동작문화원의 발전이 주목된다.

취재 _ 김준호 기자

Interview _ 수강생 윤경한씨

“문화대학은 삶의 활력소”



동작문화원의 자랑거리인 ‘문화대학’ 수강생인 윤경한씨를 만났다. 그녀는 건전가요 프로그램 출신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오랜 기간 동작문화원을 다니고 있는 수강생이다.

-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하는지

지난 99년 동작문화원이 프로그램을 개설한 직후부터 건전가요, 차밍디스코, 댄스스포츠, 민요, 한국무용 등의 프로그램을 섭렵했다. 프로그램의 질은 물론이고 함께 교육받는 수강생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5년째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것이다.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가요교실을 듣고 노래실력을 키운 덕분인지 300명의 신청자 중에서 뽑혀 노들가요제 본선에 나가 열창하던 기억이 새롭다. 모두 문화원 프로그램을 열심히 수강한 결과다.

- 프로그램 수강의 장점은 무엇인지

저렴한 비용으로 어머니들끼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강의를 받는 것이다. 유대관계가 매우 깊어져 사회활동의 한 축이라고 여길 만큼 내용성이 풍부하다.

- 수강 이외에도 다른 활동이 있는지

문화원 주최의 각종 문화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여한다. 주부 백일장과 영어 경시대회 등도 참여하면 그 재미가 만만치가 않다.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도심형 문화원’으로 차별화할 터”

동작문화원 이윤선 사무국장. 그는 98년 연만희 원장과 함께 동작문화원 탄생의 산파역을 담당했고 현재에도 크고 작은 문화원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사 출신인 이국장은 ‘도심형 문화원’의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 강좌를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운영하나

실제 근무인원은 문화원 직원 3명, 파견공무원 3명 총 6명의 직원이 있다. 인원은 적지만 무엇보다 직원간의 믿음이 있어서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 말없이 역동성을 발휘한다. 매기 4천명이 넘는 수강생 관리와 연간 100여건이 넘는 각종 행사를 무난히 진행하는데는 인력의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

나 30명의 문화원 도우미(자원봉사자)와 문화원 이사진 및 동작문화대학 각 강좌의 지도교수님의 깊은 배려와 헌신이 지자체의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구민의 적극적 참여 등 적은 인원으로도 현재와 같이 무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동인이 되고 있다.

- 사업을 하다 보면 수강생이나 주민들이 불만도 더러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

수강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생들이 어려운 점을 말할 때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

든 임직원의 열정이 구민과 구청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고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동작문화원은 전형적인 도심형 문화원이다. 도심형 문화원은 어떻게 차별화해야 한다고 보는가

도심형 문화원의 충족 요건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의 광장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정보화 교육, 주부노년층의 즐거운 여가생활 및 부업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주변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 지자체 지원 네트워크 형성의 구성요건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역문화 육성 및 창달,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시키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과 사회교육의 확대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문화 활동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 문화관광부, 그리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문화민족의 긍지와 문화 능력으로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문화기반국가이다.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원에 국가적 예산배정이 보다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우리문화원은 동작구민께 감사할 뿐이다. 동작문화원은 사실상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문화원 사람들이 둘러 본 베트남 · 캄보디아



사진 _ 전명찬 |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정보과장

앙코르 문명과 안남(安南) 문화 행유기(行遊記)



월남전쟁으로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나라 베트남... 하지만 훨씬 전부터 베트남과 우리는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삼우당(三憂堂) 문익점 선생이 붓에 숨겨 가져온 목화씨앗의 교지국이 바로 베트남(옛지명: 안남)이고, 문익점 선생은 그 곳에서 2년간 유배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 엮는지 베트남 여행길에 대한 기대는 출발 전부터 나를 설레이게 만들었다.

베트남의 거리에서의 한국 모습

하룻베이에 도착한 우리는, 3시간 30분 정도 버스에 몸을 싣고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로 향했다. 우리나라의 도로만큼 이나 베트남의 거리도 오토바이, 버스를 비롯한 많은 운송수단이 도로를 메우고 있었는데, 우리가 탄 버스를 포함해서 베트남 거리를 달리는 중대형 버스는 대부분 한국산이라고 한다. IMF 당시 많은 양을 수입하였고, 지금은 부속류의 호환관계로 중고버스를 수입한다고 했다. 뿐만아니라 유태현 베트남 대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 30억불 수입 20억불로 동남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이며 한국산 화장품 점유율도 50% 이상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관계지속을 위해서는 앞으로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란 생각이 든다.

베트남의 옛 지도자, 호志明

베트남 주재 대사가 주최하는 만찬을 마치고 호志明의 묘소와 생가를 방문하였다. 호志明은 우리나라에서 호치민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베트남의 정치가로, 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 공화국을 독립하고 통일하는 두 과업을 이룩해낸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호志明의 묘소 입구에 다다르니 '첨양호志明유용규장(瞻仰胡志明遺容規章)' 이라고 크게 표시되었다. '앞드려 우러러 보아야 된다' 는 호志明 생존과 같은 모습을 뜻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는 유언으로 화장제를 유지하여야 했다던



그도 화장을 했어야 하나 시신을 그대로 유존케 하였다. 독신으로 그가 살던 옛집, 서재, 침상 등을 둘러본 후 나오는 길에 호지명의 시집을 구입하였다. 한자로 베트남 글과 함께 표시되었고 옥중시로서 이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그 첫 장에서 이렇게 시를 남겼다.

신체재옥중(身體在獄中)
정신재옥외(精神在獄外)
욕성대사업(欲成大事業)
정신경요대(精神更要大)

몸은 옥중에 있어도 정신은 옥 밖에 있으니 큰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정신을 거둬 크게 가져야 할 것이다.

옛 베트남, 안남의 문화를 들여다 보다

다음 코스로 베트남 민속 박물관에 도착하니 한우창 참사관이 먼저와 있었고, 후이 박물관장과 함께 기념촬영 후 대담과 관람이 진행되었다. 때마침 그곳에서는 LG에서 TV모니

터 일체를 회사 하였고 문화관광부에서 한복 일곱 벌을 보내와 '참여정부 1주년 경축 행사' 일환으로 전시회도 진행되고 있었다.

후이 관장의 박물관 소개를 마치고 베트남대사관 직원의 통역을 통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거창문화원 표대수 원장의 한자권 문화에 대한 질의에 후이 관장은 1916년 마지막 한문과거시험이 있었고 한국 이두와 같이 베트남에서 한자 변형으로 쓰이는 쯔놈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한자연구소와 대학에서 한자를 연구 한다고 대답해 주었다. 산청문화원 구정란 간사는 벼농사로 생기는 쥘의 용도를 묻자 연료와 비료, 물소 먹이로 하고 있다 하였고 필자는 주 베트남 대사께서 우리와 베트남 민족이 4천이나 다름없다고 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후이 관장은 베트남에 온 한국 유학생들이 7~8년간 마을 풍속 문화를 연구한 결과 중국의 영향을 두 나라가 함께 받아왔고 한자를 변형하여 베트남에서 '쯔놈', 한국에선 '이두'로 변형되었고 역사적으로도 조선시대에 이용상이 한국에 넘어갔고 실크로드로 인도의 아우타국 황후가 베트남을 거쳐 가야



김해에 이른 것 등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었다. 권용태 회장의 화답으로 2004년 서울 세계박물관 대회에 참가하면 친절히 안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회회탈 2점을 기증하였다.

필자는 박물관에서 몇 점의 문래를 보았다. 우리 민족은 삼우당 문익점이 목화씨앗을 가져왔고

목화솜을 말아 저어서 실을 뽑아내는 기구를 그의 아들 문래가 창안하여 그 이름을 따서 문래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목화가 먼저 있었던 이곳에서 연대를 더 거슬러간 시기에 Sa K'eo S'oi 사개오서이(Spinning Wheel)라는 이름으로 이미 전해져 오고 있었다고 하니, 보다 사실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양코르 문명과의 만남

양코르는 9세기 초, 자야바르만 2세가 양코르를 건설하면서 부른 옛 땅이름이다. 문명은 하나의 공간, 문화지역, 문화적 특성과 현상의 집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코르 문명이라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접근해 본다. 양코르툼, 왓트, 바이온사원 등 다양한 사암과 락테라이트로 쌓아두고 물로 둘러진 해자로 구성된 양코르 유적을 발로 밟아보면서, 쳐다보면서, 만져보면서, 둘러보았다.

세계 고고학자들이 참여하여 무너지고 훼손된 부분을 중장기 계획으로 원상을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사원 화랑(복도) 벽을 세단계로 나누어 연속적인 부조물로 장식하였다.

당시 병장기를 든 전투장면, 행군을 생생하게 묘사 부조하였고 생활상, 권선징악의 표현부조 등 다양한 표시는 우리 석조문화와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문명이다. 우리들에게는 부처의 온화한 자비상, 정교한 탑파의 형상, 보살상의 미소와 부드러움 금석문의 아름다운 조형미와 글자의 우수성 등

웅장함은 없어도 하나하나 예술적 심미안이 있다 백성들의 엄청난 수탈과 박해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이루어 놓을 수 없는 앙코르유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캄보디아를 나서며

12일 시엠립의 앙코르문명 유적이 흩어진 것을 모아둔 창고를 방문하였다.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전체유적을 둘러볼 때 돌에 부조는 잘된 반면 글로 남긴 금석문은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몇 점의 비석을 볼 수 있었으나 한국의 금석문과는 비교되지 않는 듯 하다.

캄보디아 시엠립을 끼고 있는 톤레삽 호수를 이번 여행에서 가장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갔다. 호수의 수상에 흐술하게 얽혀놓은 나무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가난한 캄보디아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 가운데 베트남 보트 피플들도 있다고 하였다. 호수에 풍부한 어족자원에 의존하여 살고 있고 즐거운 생활상을 하고 있음은 그들만의 행복을 만끽하고 살지 않을까 여겨졌다.

2004년도 우수문화원 관계자 해외 연수과정에서 기행문으로 쓰는 과정에서 제목을 앙코르문명과 안남문화 행유기로 하면서 문화관 정관 사업목적을 생각하였다.

아오르 문명의 기록이 없어 중국에서 사신으로 온 주달관이 보고 느낀 것을 기록으로 남긴 진랍풍토기를 바탕으로 앙코르 유적 복원에 근간을 둔다하였다. 같은 시대 고려에 한 달간 머문 중국 사신 서궁이 고려인들의 생활상, 풍습을 기록한 고려도경을 보고 우리는 그때 그 시절 생활상을 연상케 한다.

양코르, 안남, 교지국 등은 옛 지명이다. 향토사는 지명의 변천과정이라 할 수 있고 지역고유의 문화를 자료로 묶어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화원 일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알뜰한 쇼핑과 더불어 모두들 문화원 위치에서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니는 곳곳마다 다양하게 사진촬영과 메모를 하는 등 열의와 성의를 보여준 모습은 스스로 긍지를 가질 것이다.



글 _ 김중위의성문화원장

유교와 불교의 나라 베트남 힌두교 사원의 나라 캄보디아



강렬한 태양,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 우리는 하노이 공항을 통해 베트남의 문화 속으로 들어섰다. 초라한 시골 공항 같은 풍경과 주민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그들의 자존심만은 대단히 강한 편이라고 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가 1등이고, 그에 반해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서 비겼기 때문에 2등이라는 안내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긴 세월동안의 전쟁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승리자의 관용과 함께 국민 모두를 결속시키는 구심점이 되어 국가 재건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의 베트남이 있기 까지, 호지명의 지도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81세로 일생을 마감한 그는 독신으로 살면서 청렴결백한 생활을 숭상수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우리 일행은 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묘소를 찾았다. 작은 체구이긴 하지만 반듯하게 누워 깊은 사색에 빠져있는 듯한 영락없는 노인의 모습이였다. 그는 어려서 한문을 배워 유교의 영향을 받았고, 다산 정약옹의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즐겨 읽었다고 한다.

문화의 힘은 곧 경제 도약의 발판

하노이의 길은 양쪽을 구분하는 중앙선이 없다. 그래서 차량은 좌우 구분 없이 어느 쪽이나 다닐 수 있고, 이로 인해 하루 동안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만 해도 무려 25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월남전 당시 사상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베트남... 이런 면모가 진정한 베트남의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베트남은 과거 미국과의 전쟁이 아닌, 경제와의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쌀이 부족해서 식량을 외국에 의존했던 그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3대 쌀 수출국으로 급부상 했다는 통계는, 경제와의 전쟁 역시 승리로 이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베트남의 도로 곳곳을 가득 메운 오토바이 행렬만큼이나 경제도약을 위한 내면의 엄청난 고동소리 라는 것을 실감케했다.



이러한 베트남의 모습은 인접 국가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는데, 유교와 함께 대승불교의 영향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내뿜는 베트남과는 달리, 소승불교의 영향 하에 있었던 주변국들은 현재 상황을 전생 탓으로 돌리며 현실극복의 의지나 도전정신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문화적인 차이가 얼마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호텔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창조 · 도전 · 희생' 이라고 쓰인 문구가 한 눈에 들어왔다. 이러한 정신은 전쟁 후 폐허가 된 베트남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일으켰고, 나아가 베트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란 생각이 들었다.

유태현 주베트남 대사는 우리 일행을 초대한 만찬에서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면을 파악하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코르와트의 찬란한 유적

양코르 문명의 유산을 둘러보기 위해 더위를 무릅쓰고 캄보디아 고도 시엠펙에 도착했다. 양코르와트사원 서문에 다다

르자 좌우에 각각 54명의 선신(善神)과 악신(惡神)이 줄다리를 하고 있는 조각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여기에서 백팔번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어서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관람을 시작했는데, 라테라이트로 기초석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정교하게 쌓은 예술적 감각과 사실적 조각을 통해, 신의 경지에 다다른 자 했던 과거 군주의 욕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이 먹구름이 드리워진 하늘,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이 사원을 에워싼 나무들..

이 지역은 문순성 기후 탓으로 팜나무, 스펡나무 등이 많았는데, 나무가 서있으면 개인 소유의 정원이라 할지라도 나무를 빙 둘러 담장을 쌓아야 하고, 더군다나 자르는 것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등, 그 관리 또한 아주 각별했다.

국토의 약 70%가 100m 이내의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면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노력이기도 했다.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과 달리, 인도의 영향을



받은 캄보디아는 힌두교 사원이 많았다. 또한 불교 사원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자야르만 7세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사원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사원 안으로 들어서자 벽화 조각에 쓰인 산스크리트어 문자가 눈길을 끌었다. 한글을 창제할 때도 이 문자를 참조했다고 하니, 실로 문화의 힘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사원의 돌조각 하나 하나는 그 당시의 수학과 건축을 반영한 하나의 종합예술이기도 하다.

면도날조차 들어갈 틈이 없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 신의 방 입구에 들어서자, 스콜이 쏟아진다. 천자가 칠혹같이 어둡고 천둥 번개가 사원을 한번에 날려버릴 것 같은 기세다. 경건한 마음으로 신의 사원을 두루두루 살피고 걸어 나오는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워질 정도로, 신에 대한 인간의 겸손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캄보디아를 떠나면서

엔진과 화물칸만 있는 일명 해골차를 타고 동양 최대의 톤레삽 호수로 향했다. 비릿한 냄새의 갈대숲과 진흙 발을 쿵

쾅대며 달려간 그 곳 주민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흙탕물로 뒤덮인 수상가옥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학교도 호수 위에 떠있고 시장도 물 위에서 열린다. 수상 돼지우리의 돼지하며, 목이 맨 원숭이들이 담장 막대기 위로 뛰어 오르며 이방인을 대했다.

주민 생활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모습과는 달리 태어났으니 살아가고 있는 연명 그 자체가 전부인 그들에게는 도무지 희망이라곤 없었다.

폭우 속에서도 비행기는 활주로를 이륙한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했다.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창달하는데 미력하나마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오른다.



글 _ 김경식 홍성문화원 사무국장

온 가족이 가볼만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을 주룩룩 흘리내리는 요 몇 년 중의 가장 무더운 여름이다. 시원한 계곡과 바다와 함께 편안한 쉼터가 그리기만 하다. 몸과 정신, 마음까지 편안하게 쉬 만한 좋은 쉼터 어디 없을까? 아이들의 방학숙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겠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말고 맑고 맑은 공기와 새들의 노래, 풀과 나무의 속삭임, 이름모를 아름다운 꽃들의 눈짓이 편안하고 정겨운 숲을 찾아가보자.

수목원 자연공원

국립수목원

세종대왕이 문헌 광릉의 부속림으로 광릉수목원으로 불리다가 1995년부터 국립수목원으로 명칭이 바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수목원이다. 총 2218ha의 면적에 2900여종의 식물, 2800여종의 동물들이 살고 있고, 크낙새,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등 20여종의 귀한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 ‘국내에게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동식물의 낙원’, ‘국내 최고의 천연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곳.



습지원, 관상수원, 수생식물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물원 등 전문수목원과 함께 야생동물원, 온실, 숲생태관찰로 등의 시설물이 있으며 산림박물관도 안에 있어 현장학습지로 최고의 장소이다.

- 위치 |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 51-7
- 전화 | 031.540.1114
- 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이용요금 | 일반 1,000원 / 청소년 700원 / 어린이 500원 /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무료 / 단체할인 없음

한국자생식물원

오대산 자락인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 1999년 문을 연 야생식물원으로 천연기념물 미선나무, 희귀식물 개불알꽃 등 우리 자생식물을 주로 하여 나무와 꽃 1,100여종을 체계적으로 가꾸고 있으며 다양하고도 희귀한 야생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해마다 7~8월이면 군락재배단지 5천여 평에는 5월 하순이면 부채붓꽃, 6월 분홍바늘꽃과 꽃창포, 7월 부처꽃, 8월 벌개미취, 9월 구절초 등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언덕 가득히 피어나 장관을 이룬다. 산자락에 조성된 2km의 신갈나무숲은 등산이나 산책로도 좋으며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지구 입구에 초입에 있어, 월정사와 상원사 등 문화유산 답사를 곁들인 나들이 코스로도 적당하다.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병내리 405-2
- 전화 | 033.332.7069
- 관람기간 | 4월1일~10월31일
- 이용요금 | 일반 5,000원 (단체 3,500원, 30인 이상) / 중학생 3,000원 (2,000원) / 어린이 2,000원(1,500원)

아침고요원에수목원

한국영화 '편지'의 촬영장소로 더 유명해진 아침고요수목원은 잣나무 숲이 울창한 가평의 축령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원예학과 교수인 한상경씨가 설계·조경한 수목원으로 1996년 문을 열었으며 특히 주제별로 조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들이 큰 특징이다. 장독대가 있는 초가집, 양반대가집 등 전통가옥에 각종 한국의 꽃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한국정원, 한국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로 꾸며진 야생화정원, 300여종의 아이리스가 울긋불긋 피어나는 아이리스정원, 자연경관에 소나무, 단풍나무 등의 분재작품을 조화시킨 분재정원, 침엽수 정원 등 17개의 테마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가 있는 산책로를 여러 아름다운 시를 음미하며 걸어볼 수도 있는 낭만과 편안함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산255번지
- 전화 | 031.584.6702
- 휴관일 | 연중무휴
- 이용요금 | 일반 6,000원 (단체 5,000원) 중 · 고생 5,000원(4,000원) 초등학생 4,000원(3,500원)

한라수목원

세계에 자랑할만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에도 가볼만한 수목원이 있다. 신제주 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제주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싱그러운 산림욕을 할 수 있는 한라수목원이 바로 그곳. 제주의 들녘과 오름 해안에 자생하는 토종식물들을 한데 모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았으며 수목원에서 남조순오름 정상으로 이어지는 산림욕장을 지나면 신제주 시가지와 제주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이곳을 전국 최초로 멸종위기 보호야생식물의 <서식지의 보전기관>으로 지정했다. 환경부가 멸종 위기 식물로 지정한 나도풍란, 한란과 파초일엽, 갯대추 등 보호 대상 식물 2722 그루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 속의 자연학습장과 산책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연동 1000
- 전화 | 064-746-4423
- 휴관일 | 연중무휴
- 이용요금 | 무료

한림공원

아름다운 풍경과 테마별로 조성된 숲, 다양한 꽃들의 축제, 민속마을과 시원한 동굴, 편안한 휴양시설 등 자연과 더불어 하루를 쾌적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의 한림공원이다. 1971년 제주도의 서쪽 한림읍 협재리 바닷가 주변의 황무지였던 모래밭을 개간하여 야자수들과 관상수를 심고 가꾸기 시작하여 현재 2천여 종 2만여 그루의 꽃과 나무가 숨쉬는 곳이 되었다. 입구를 지나 야자수길로 이어지는 이국적이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시작으로 아열대식물원, 수석전시관, 제주석분재원, 새가 있는 정원, 연못정원 등 다양한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제주의 전통초가를 그대로 복원해놓은 재암민속마을과 매몰되었던 두 개의 천연 동굴을 발굴해 동굴의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협재동굴과 쌍용동굴이 온 가족의 나들이를 더욱 즐겁게 해준다.



- 위치 |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 전화 | 064.796.0001~4
- 휴관일 | 연중무휴
- 이용요금 | 일반 5,000원 (단체 4,000원) 중 · 고생 4,000원(3,000원) 초등학생 3,000원(2,500원)

월드컵공원

서울시의 쓰레기매립지였던 난지도가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완공과 더불어 새로운 친환경 공원인 월드컵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여의도 공원의 15배,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비슷한 105만평의 크기.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다섯 개의 테마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화의 공원에는 광장과 호수가, 하늘공원은 서울의 풍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노을공원은 생태관찰공원과 야생화단지, 산책로, 서해 낙조를 볼 수 있는 광장이, 난지천 공원은 생태공원과 숲이 각 공원의 특징이다. 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공원 전시관을 구경할 수도 있고 공원마다 광장과 운동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타기, 다양한 운동을 즐기기에 좋다. 가족이 야영을 할 수도 있는 야영장도 마련되어 있고 주말과 방학 중에는 다양한 생태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위치 | 서울 마포구 성산동 549 • 전화 | 02.300.5500~2 • 이용요금 | 무료



선유도 공원

한강에 걸려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행교로 마치 무지개를 건너는 환상에 젖게 하는 선유교를 건너가면 선유도라는 작은 섬이 떠있다. 이곳이 바로 선유도공원. 한강 내의 섬인 선유도의 옛 정수장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재활용생태공원이다. 언덕 위를 지나며 한강과 서울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상쾌한 산책로와 햇볕, 바람, 하늘, 식물 등이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정원 사이의 사색의 길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원이며 규모가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공간 구성과 특히 매력적인 곳이다. 특히 정수장의 구조물을 가장 온전하게 보전하여 재활용한 시간의 정원은 이곳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식물들과 남아가는 구조물이 대비되어 시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한강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한강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으며 무지개다리라고도 불리는 양평한강시민공원에서 선유도를 있는 선유교는 아치형 보행전용다리로 교량 아래에서는 빨강과 노랑, 초록, 파랑 등 4가지빛으로 조명을 비추어 야간에는 더욱 아름답다.

• 위치 | 서울 양평동과 합정동을 잇는 양화대교 중간 • 전화 | 02.3708.0885~5 • 이용요금 | 무료



인천대공원

경기도 시흥시에서 인천의 남동구로 향하는 길은 도시의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 모습이 아니라 초록의 자연 풍경이다. 바로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곳에 인천대공원이 있다.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관모산 일대 88만평의 규모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대공원은 주위에 소래산 줄기의 상아산, 거마산을 끼고 있어 더욱 푸르고 시원하다. 기암괴석 2백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수석공원을 비롯해 장미원, 다목적광장, 식물원, 인공호수 등이 있으며 야외극장과 잔디축구장, 궁도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시설과 산책로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거나 마음 편히 산림욕을 즐길 수도 있다. 승용차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싱싱한 횡감과 각종 젓갈을 구입할 수 있는 월곶(소래)포구도 있어 가족 나들이에도 적당하다.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전화 | 032.466.7282 이용요금 | 무료



취재 _ 지호진 기자

New Books

만고불변의 가르침인 효의 실천적 방향 제시

사람됨의 도리 효 | 이용범 지음 _ 바움

'인생의 참스승 선비'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빛나는 인물들의 향내나는 일화들을 발굴해 수 많은 독자들에게 색다른 책읽기의 즐거움을 안겨준 소설가 이용범이 또 하나의 역작인 '사람됨의 도리 효'를 출간했다. 이 책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걸맞은 효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만고불변의 가르침이자 사람됨의 도리인 효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 주려는 의도에서 기획됐다.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일이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떠한가.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자식이 높은 부모를 방치해두거나 남몰래 구박하는가 하면, 젊은 부모가 자식을 내다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리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는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이다.

효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자 모든 행실의 근본 또는 윤리도덕의 척도로 여겨져 왔다.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는 사당과 마을 입구에 세워진 효자정문을 보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부모를 모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때문에 나라에서도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실을 모은 서적들을 간행해 백성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적극 활용했다. 그 대표적인 책으로는 '삼강행실도' '효행록' '명심보감' '효경' 등이 있다. 그런데 생활속의 효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중 상당수도 우리 시대와 크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자신과 그 주변을 돌아보게 해 주는 그런 책들이다. 이 책은 문헌에 나타난 선인들의 효 이야기와 민담 속에 나타난 선인들의 효 이야기로 구성됐다. 물론 그 속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효 이야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인간 이순신의 영웅 이순신으로의 변화 그려

이순신의 두 얼굴 | 김태훈 지음 _ 창해

불가능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초인적 의지를 지녔던 영웅 이순신! '이순신의 두 얼굴'은 평범했던 인간 이순신이 영웅 이순신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방대한 분량의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사실적으로 파헤쳤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일하는 김태훈은 여느 역사학자 못지 않게 이순신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다. 서점에 나가보면 이순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힌 책을 만나기 힘들고,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한 책도 없기에 자신이 직접 이순신 실제 밝히기에 뛰어든 것이다. '두 얼굴의 이순신'은 지도와 사진, 그림 등을 통해 7년전쟁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파헤쳐 이순신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우리가 몰랐던 평범한 강정의 소유자가 비범한 영웅으로 성장한 과정을 이해하는 순간,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회사, 국가에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꾼 사람들

환관과 궁녀 | 박영규 지음 _ 김영사

역사에 거대한 발자국을 남긴 자들은 모두 왕들이었으나, 그 발자국 뒤에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그림자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바로 궁궐의 제3의 세력 환관과 궁녀다. 이 책은 그 그림자들의 탄생과 성장, 소멸에 관한 이야기로,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들과 제왕, 그들과 국가, 그들과 백성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씨 없는 수박인 환관을 부르는 명칭들로부터 거세 전문가 업공의 환관 만들기, 궁형, 환관부부와 자식, 우리역사와 중국역사를 뒤흔든 환관들, 궁녀의 명칭, 궁녀의 선발과 교육, 왕의 어머니가 된 궁녀들,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 잘 알려진 의녀의 탄생과 역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의녀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었던 시대의 환관들과 궁녀들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소성의 향기

소성(蘇城)은 태안의 옛 지명이다. 530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인 태안지역은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태안문화원 정우영 원장은 전국 10개 도서의 면적과 인구, 읍면수를 대비하는 한편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안면읍 분면(分面)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태안지역 태극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신상규 향토사학자) '미타정토신앙에 대한 고찰'(김명규 향토사학자)과 14편에 달하는 문화가족 시 모음집 등을 수록하고 있다.
태안문화원 290페이지



마포의 역사인물

조선시대 서해와 중국대륙을 잇던 포구로 많은 물화가 드나들던 곳이 바로 마포이다. 마포는 한강을 끼고 있어 풍광이 뛰어나 마포강변에는 망원정·담담정·평초정·영은정 등 많은 정자가 세워져 고위 관리를 비롯한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이러한 마포에 조선 초기의 명신 신숙주와 박세채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마포의 역사 인물 신숙주와 박세채'를 발간하였다. 신숙주(申叔舟)편에서는 진사시험에서 장원급제한 것을 비롯해서 대마도주와 계해약조의 체결, 한글 창제라든지 두차례에 걸쳐 여진족 평정길에 나선 것 등 학문 연구 이외에도 많은 업적을 남긴 그의 일대기를 개략적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조선 후기 예학의 대가인 박세채(朴世采)의 행적도 자세히 기술해 놓고 있다. 예론의 전개에서부터 황극탕평의 실천방안과 비변사의 기능축소 등 군제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군영의 개혁은 물론 군비 확충을 비롯해서 산성활용의 효율화 등 많은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마포문화원, 335페이지

장승 생각

동작문화원 문학반 동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을 작품으로 완성하여 '동인지'를 만들었다. 맹문재·이순주 선생의 초대시와 회원(35인)의 시, 산문에 이르기까지 삭막한 도시환경 속에서 쏟아져 나온 주옥같은 작품들은 기성작가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순수함이 묻어 있어 이것은 곧 문화강좌의 결실이자 향토문화를 살찌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동작문화원, 170페이지



家庭儀禮要覽(가정의례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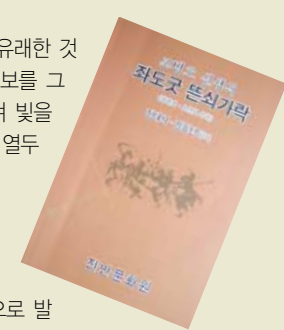
디지털시대를 맞으면서 가족 간의 대화 부재로 전통문화도 우리 곁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구전으로 배우고 익히던 전통 제례법 역시 단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가정의례요람'에서는 관혼상제(冠婚喪祭)의 4례(禮)를 기준으로 각각의 의식 절차와 방법, 서식을 포함해서 배례(拜禮) 방법에 이르기까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소상하게 기술해 놓았다.
초치원문화원 390페이지

좌도굿 뜯쇠가락

호남의 풍물은 '전라좌도풍물'과 '전라우도풍물'로 구별된다. '뜯쇠'는 남시당패의 꼭지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직업적인 예인들이 이르는 말이다. 좌도풍물의 가락을 이어 온 명인 고 조병호 선생의 정관보와 오선보를 그 제자인 정대석 씨(국악고 강사)와 정길선 씨(세경국악원장)가 고인의 타계 1주년을 즈음해 공동으로 정리하여 빛을 보게 되었다. 진안좌도굿의 대표 굿인 열두마치굿이 현재 연회되지 않고 있는 네마치와 여섯마치, 여덟마치, 열두마치, 열한마치 가락까지 채보되어 진안마치굿의 원형 찾기 시도로 많은 관심을 사고 있다.
진안문화원 116페이지

남양주 근대100년사

개항기와 일제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양주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이나 이름을 남긴 인물을 중심으로 발간된 이 책자는 뛰어난 업적을 통해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은 물론 파란 많은 역사적 사건의 한켠에서 사라져 간 인물도 있다. 안창호·여운형 선생 등 독립운동가를 위시해서 국어 운동가인 주시경·최현배 선생, 농촌 계몽운동가인 김용기 선생 등의 출생과 업적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남양주문화원 151페이지



우리문화

- 발 행 : 전국문화원연합회
우편번호 : 121-715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 www.kccf.or.kr
전 화 : (02)704-2311~3
팩 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7.12)
- 발행·편집인 : 권용태
- 편집주간 : 채강희
- 기획팀장 : 강민철
- 편집&디자인 : 컬처플러스
우편번호 : 100-013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24-3
제복빌딩 303호
홈페이지 : www.cultureplus.com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 화 : (02)2275-8106
팩 스 : (02)2275-8107
정 가 : 3000원

‘우리문화’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주십시오)

발행처 :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실 : 우)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3
제복빌딩 3층 컬처플러스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E-mail : cultureplus@hanmail.net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우리 문화속의 성과 로맨스

지족선사를 유혹한 황진이

갈매기 이마에 큼직한 검은 눈동자, 봉숭아 꽃잎같은 입술 그리고 봉긋이 솟은 가슴, 하늘 하늘 거리는 발걸음.

조선시대 못 남성들의 연인 황진은 용모가 출중했고 뛰어난 총명성과 민감한 예술적 재능을 두루 갖춘 여성이었다. 노래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정통하고 시(詩)에도 능했다. 당대를 풍미했던 사내들은 그저 황진의 손목이라도 잡아보려고 보채기 일췌였다. 그녀는 최고의 스타였다.

“자네, 황진이하고 하룻밤 지내보았는가?” 당시 선비들은 그녀와의 풋사랑을 대단한 감투처럼 여겼다. 실제로 그녀와 살을 맞댄 사내들은 이름 석자만 대면 알만한 사회의 저명인사들이었다.

그중 우리의 고개를 가웃거리게 하는 두 남자에 얽힌 일화가 있다. 지족선사와 서화담. 10년동안 도를 닦아 ‘생불’이라 불리던 지족선사는 그만 황진의 유혹에 넘어가 파계승으로 전락하는 창피를 당한다. 반면 당대의 대학자 서화담은 끝끝내 황진의 유혹을 물리친다. 유혹에 실패한 황진은 서화담의 인품에 매료되어 사제사이로 남아 만남을 계속한다.

이 대목에서 황진의 시 한편을 들춰 보자.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거든 구뽀구뽀 퍼리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은근하게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야한 시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 사랑이 아닌 육체적 사랑에 가깝다. 입에 대한 그리움이 ‘이불’을 통해 상관계로 바뀐다. 그리고 한번 입과 만나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영영 안나올 것 같은 보통 이상의 성욕을 드러낸다.

그것은 단순히 초절정의 그리움에 대한 노래일 수도 있고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반항의 한 단면일 수도 있다. 당대 선전관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던 이사종과는 6년 계약으로 동거를 하기도 했고 재상의 아들 이생과는 금강산을 유람하며 사랑을 벌인다. 이생과 깊은 산골 안가본데 없이 두루 돌아다녔던 황진은 먹을게 다 떨어지자 중에게 몸을 팔아 식량을 구해왔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아직까지 현대인 사이에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더 큰 ‘계약결혼’을 황진은 이미 400년전에 몸소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노예’가 되어 무엇이든 희생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이런 황진이가 서화담을 남자로서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모셨다는 것은 참으로 특기할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화담 역시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않고 스승의 신분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렵다.

황진이와 서화담의 순수한 만남에 대해 의문부호를 다는 행위는 하고 싶진 않지만 수십년간의 불도를 한순간에 내팽개치고 아름다움에 몸을 던진 지족선사 이야기가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조선시대이건 21세기이건 아름다움이란 언제나 말쑥이다.